2021年度
春季聯合國際學術大会

大韓中國學會 嶺南中國語文學會
中國人文學會 韓國中國文化學會

포스트코로나19 시대의 중국학의 과제와전망

日時 | 2021年6月19日(토) 13:00-18:00

主催 | 大韓中國學會 嶺南中國語文學會
中國人文學會 韓國中國文化學會

主管 | 한국중국문화학회 the Society of China Culture in Korea
충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 Confucius institute at Chungnam National Univ.

2021年度 春季聯合國際學術大會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중국학의 과제와 전망

❍ 일시 : 2021년 6월 19일(토) 13:00~18:00

❍ 주최 : 대한중국학회 · 영남중국어문학회
중국인문학회 · 한국중국문화학회

❍ 주관 : 한국중국문화학회 · 충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

목 차

【제1분과】 중국어학(1)

1. 新HSK 2·3급 기출문제 문형분석과 그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 1
발표: 김기범(광주여자대)
토론: 박용진(전북대)

2. “相等”詞性及相關問題新探 ····· 13
발표: 金鐘讚(안동대)
토론: 金玲敬(江西師範高等專科學校)

3. 뉴버전 HSK 고등급(7~9급) 독해영역의 대비책과 교수학습 방안 ····· 25
발표: 한승(단국대)
토론: 한희창(한양대)

4. 중국어 왕복이동 동사의 용법과 의미 ····· 35
발표: 이선희(계명대)
토론: 이은수(충남대)

【제2분과】 중국어학(2)

1. 중국 표어에 나타난 중국인의 언어습관 양상 ····· 47
발표: 기유미(부산외국어대)
토론: 박찬욱(경희대)

2. 在韓中國留學生使用韓語名字形式喜好度調查研究— 以釜山P大學中國留學生爲對象 ····· 57
발표: 樊杰·王彦迪·金炫兌(부경대)
토론: 김정훈(부산외국어대)

3. 現代漢語新興程度副詞“超”的認知語義演化機制分析 ····· 67
발표: 金鉉哲·陳依諾(연세대)
토론: 이명아(국민대)

4. ‘再’의 의미 확장에 대한 연구 ····· 83
발표: 김홍실(충남대)
토론: 김종혁(대전대)

【제3분과】 중국문학

1. 《論語》引詩与直觀思想“思无邪”的探究 ····· 99
발표: 이광혁(호남대)
토론: 오만종(전남대)

2. 은어의 문화정치학과 만주국 문학 ····· 107
발표: 봉인영(충북대)
토론: 정겨울(동국대)

3. 문자의 발달 원리에 따른 육서(六書)의 재고찰 ····· 117
발표: 곽현숙(경성대)
토론: 김현태(부경대)

【제4분과】 중국문화, 철학, 경제

1. 范子眞의 신멸론 사상의 가치와 영향에 대한 연구 ····· 125
발표: 조원일(전남대)
토론: 윤지원(단국대)

2. 518과 중국 공산당 — 중국공산당 100주년 단상 ····· 137
발표: 신정호(목포대)
토론: 한담(전남대)

3. 중국의 공급측개혁과 석탄산업의 연관관계 분석 ····· 147
발표: 최정석(선문대)
토론: 최석규(선문대)

【제5분과】 학문후속세대

1. 《上博簡》孔子語錄文中介詞“於”字用法考 ····· 157
발표: 袁曉鵬(전북대)
토론: 오길용(군산대)

2. “可着+NP+VP”的构式研究 ····· 169
발표: 金洪臣(전북대)
토론: 진현(영남대)

3. 论方方小说《万箭穿心》的电影改编 ····· 179
발표: 장지원(경북대)
토론: 한지연(중앙대)

【제1분과】

중국어학(1)

新HSK 2·3급 기출문제 문형분석과 그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김기범*

目 次

Ⅰ. 서론
Ⅱ. 新HSK2급 문법등급 범위와 기출문제 문형분석
Ⅲ. 新HSK3급 문법등급 범위와 기출문제 문형분석
Ⅳ. 독해시 고려해야 할 요소
Ⅴ. 결론

Ⅰ. 서론

HSK(汉语水平考试)는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중국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는 유일한 중국 정부 공식 중국어능력 표준화 시험으로서, 전 세계 많은 중국어 학습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어능력 평가도구이다. 한국에서는 2010년부터 새로이 개정된 형식의 '新HSK'가 시행되고 있다(최승연: 2016:1).

国家汉办에서는 학습자들이 新HSK2급에서 획득해야 할 문법등급을 『新HSK大纲(语法)』에 제시하고 있다. 즉 『新HSK大纲(语法)』에 나온 문법등급을 익히고 나면 新HSK2급을 도전하는데 있어서 단어만 보충하면 문제없이 등급을 획득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급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新HSK2급에서 획득해야 할 문법등급에 제시된 것 이외의 것들도 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新HSK大纲(语法)』에서 제시한 新HSK3급 문법등급만 3급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아니며, 또한 제시한 문법등급 다 습득한다고 해도 독해에 고려해야 할 많은 문형들이 더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교수자가 인지해야지 만이 효과적인 지도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처럼 비전공자이지만 HSK 등급이 필요한 학습자들이 교학대상일 때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교재나 수업 구성을 할 때 어떻게 유기적으로 구성해야 할지 판단자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新HSK2급 문법등급 범위와 기출문제 문형분석

위수광(2011:297)은 3등급 체계로 구성된 「新HSK大纲(语法)(2009)」을 제시하였는데, 新HSK 1급, 2급에 해당되는 문법등급은 다음과 같다.

* 광주여자대학교 교양과정부 조교수, shaolin4@kwu.ac.kr

新HSK 1급	新HSK 2급
1. 대명사 인칭대명사: 我，你，他，她，我们，你们，他们，她们 지시대명사: 这，这儿，那，那儿 의문대명사:　谁，哪(哪儿)，什么，多少，几，怎么，怎么样 2. 수사: 시간, 연령, 금액, 번호 3. 양사: 수사 뒤에 사용 　　(这，那 뒤에 사용) 4. 부사: 부정부사: 不 정도부사: 很，太 범위부사: 都 5. 접속사: 和 6. 전치사: 在(결과보어로 쓰임) 7. 조동사: 会，能 8. 조사: 구조조사 的 　　어기조사 了，吗，呢 9. 진술문: 긍정문, 부정문(不，没) 10. 의문문: 　吗，呢，谁，哪，哪儿，什么，多少，几，怎么，怎么样 11. 명령문: 请 12. 감탄문: 太 13. 특수문: ‘是’자문 ‘有’자문 ‘是~的자문’(시간, 장소, 방식 강조) 14. 동작의 태: “在~呢” 동작의 진행	1. 대명사 인칭대명사: 我，你，他，她，我们，你们，他们，她们 지시대명사: 这，这儿，那，那儿 의문대명사:　谁，哪(哪儿)，什么，多少，几，怎么，怎么样 2. 수사; 시간, 연령, 금액, 번호, 순서, 중량 3. 양사: 수사 뒤에 사용 　这，那，几，每 뒤에 사용 4. 부사: 부정부사: 不，没，别 정도부사: 很，太，非常，最 범위부사: 都，一起 시간부사: 正在，已经，就 어기부사: 也，还，真 빈도부사 再 5. 접속사: 　和，因为，所以，但是 6. 전치사: 　在(결과보어로 쓰임), 从，对，比，向，离 7. 조동사: 会，能，可以，要，可能 8. 조사: 구조조사: 的，得 어기조사: 了，吗，呢，吧 동태조사: 着, 了，过 9. 감탄사 喂 10. 동사중첩 11. 진술문: 　긍정문, 부정문: 不，没 12. 의문문 吗，呢，吧，谁，哪，哪儿，什么，多少，几，怎么，怎么样，为什么，多 정반의문문 好吗? 13. 명령문: 请，别，不要 14. 감탄문: 太，真 15. 특수문: 是자문, 有자문, 是~的자문(시간, 장소, 방식 강조), 비교문 16. 동작의 태 ‘在~呢’ 동작의 진행 ‘正在’동작의 진행 ‘了’, ‘过’ 동작의 완성 ‘要~了’ 동작(변화) 발생하려고 함 ‘着’ 동작(상태)의 지속

위에 제시한 新HSK大纲의 1·2급 문법등급을 살펴보면 중국어 문장성분과 복문 등에 대한 제시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수광·이길연(2018:130)이 소개한 『新HSK大纲(语法:2015)』에 보면 위와 같은 문장성분 및 특수성분에 대한 제시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新HSK1급	新HSK2급
결과보어	결과보어 가능보어 정도보어 수량보어 시량보어 동량보어 방향보어 단순방향보어
연동문 겸어문: 叫 존현문 是-的구문	겸어문: 让 是-的구문 비교문
	인과관계 전환관계

그렇다면 실제 기출문제에 위의 범위를 넘는 문법등급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孔子学院总部/国家汉办主编(2014) 2급 기출문제 총 5회에 나오는 해당 성분들을 조사했다.

제1회 출현 결과보어	见，给，好，到，完，懂，多
제2회 출현 결과보어	给，到，多，错，见，晚，完
제3회 출현 결과보어	完，开，给，错，好，见，多，在
제4회 출현 결과보어	错，见，多，完，到，晚，给，在，好
제5회 출현 결과보어	完，给，晚，好，多，在，错，见，开

결과보어는 크게 자기 의미를 가지는 결과보어(예: 懂)와 문법적인 의미를 갖는 결과보어(예: 到)로 나뉠 수 있다. 학습자에게는 후자의 경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다.

정도보어 중에는 간단한 형용사구부터 복잡한 구가 오는 경우도 있다.

(1) 你介绍得非常好。p.20 제1회
(2) 他住得离学校很远。p.240 제5회

보어는 중국어에 있는 특이한 문장성분으로 비전공 한국인 학습자의 경우 원형적인 문장형식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더 많은 성분들과 결합하는 문장도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시량보어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시량과 경과된 시량을 나타내는 보어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도 출현하고 있다.

(3) 再有十分钟船就要开了。p.25 제1회
(4) 您来这个学校多少年了? p.27 제1회 경과된 시량
(5) 你来北京多长时间了? p.92 제2회 경과된 시량

동량보어의 경우 일반적인 문형 외에도 인칭대명사가 오는 문형도 출현하고 있다.

(6) 那你等我一下。p.35 제1회
(7) 您再等我一下。p.182 제4회

방향보어의 경우, 2급까지는 단순방향보어만을 제시했는데, 기출문제 중에는 복합방향보어도 출현한 경우가 있었다.

(8) 我写出来，你就知道是哪个字了。p.61 제2회

겸어문의 경우, '让，叫'를 쓰는 사역형식의 문형이 많이 나오고, 다른 형식의 겸어문 역시 출현하고 있다.

(9) 我知道，但是这儿不让向右开。P.22 제1회
(10) 有几个学生来找我，问了几个问题。p.174 제4회

또 다음과 같이 연동문 같지만, 겸어문인 문형도 출현한다. 형식이 비슷하여 학습자들이 잘 혼동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11) 明天早上我叫你起床。p.181 제4회
(12) 我开车送你回去吧。p.230 제5회

비교문의 경우 기본적인 비교문과 다른 성분과 결합된 비교문으로 나뉠 수 있다.

(13) 颜色不错，比黑的好看。 p.53 제1회
(14) 比北京冷多了 p.95 제2회[1)]
(15) 我比去年高了多少? p.209 제5회[2)]

학습자가 2급 문법포인트에서 결과보어나 수량보어를 배웠다 하더라도 이제 막 중국어 문장성분에서 특이한 문법포인트인 보어의 개념을 학습했을 것이므로 이해하는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게다가 다른 문형에서 이러한 보어를 접하게 된다면 어려움을 배가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2급 기출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이합사가 출현하고 있다.

(16) 等考完试，我们准备去北京玩儿两天，你去不去? p.49 제1회
(17) 我们是不是走错路了? p.161 제4회

이합사는 떨어지면 구가 되고, 붙으면 단어가 되는 특이한 성분이다. 그 개념 자체도 초급 학습자에게는 생소하고, 아울러 부가용법을 습득하는 것도 쉽지 않다. 新HSK1급, 2급 필수단어를 보면 '睡觉，下雨'와 같은 전형적인 이합사가 출현하는데, 개념 설명 이외에도 부가용법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2급 등급범위가 수험서에는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살펴본다. 中央广播电视大学对外汉语教学中心/김미숙편저(2018), 해커스HSK연구소(2020) 2급 대비 수험서의 문법등급 제시는 다음과 같다.

	A사	B사
결과보어	√	
방향보어		
가능보어		
정도보어	√	
시량보어		
동량보어		
수량보어		
연동문	√	√

1) 결과보어 부가
2) 수량보어 부가

겸어문	√	
존현문		
是-的구문	√	√
비교문	√	
인과관계	√	
전환관계		

위 수험서의 전반부에 정리된 문법등급을 살펴보면 2급 문법등급을 정확하게 다루지 않았다. 물론 기출문제 풀이에서는 많은 문법등급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만약 해당 문법등급이 정답과 관계가 없을 때는 언급하지 않거나 약간만 언급하는 경향이 있다. 즉 학습자들이 수험서에 의지해 시험을 준비한다고 가정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생길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많은 수는 아니지만, 기출 문제에서 2급 문법등급을 벗어나는 문장도 있었으며, 기본적인 형식에서 여러 성분들이 결합해서 복잡한 양상을 띠는 문장들도 발견된다. 또한 2급 문법등급에서 전혀 언급이 없는 이합사에 대해서 지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新HSK3급 문법등급 범위와 기출문제 문형분석

위수광(2011:297)은 3등급 체계로 구성된 「新HSK大纲(语法)(2009)」을 제시하였는데, 新HSK3급은 다음과 같다.

新HSK 3급
1. 대명사 인칭대명사: 我，你，他，她，我们，你们，他们，她们，您，它，它们，大家，自己 지시대명사: 这，这儿，那，那儿，每，这么，那么，其他 의문대명사: 谁，哪(哪儿)，什么，多少，几，怎么，怎么样，为什么 2. 수사; 시간, 연령, 금액, 번호, 순서, 중량, 길이, 어림수 3. 양사: 수사 뒤에 사용 这，那，几，每 뒤에 사용 기타: 他坐了一会儿。快一点儿 4. 부사: 부정부사: 不，没，别，一定，必须 정도부사: 很，太，非常，最，更，越，特别，多(么)，极，几乎 범위부사: 都，一起，一共，只 시간부사: 正在，已经，就，先，才，一直，总是，马上 어기부사: 也，还，真，终于，其实，当然 빈도부사 再，又，经常 5. 접속사: 和，因为~，所以~，但是，虽然，而且，然后，如果，一边，或者，还是 6. 전치사: 在(결과보어로 쓰임)，从，对，比，向，离，跟，为，为了，除了，把，被，关于 7. 조동사: 会，能，可以，要，可能，应该，愿意，敢 8. 조사: 구조조사: 的，得，地 어기조사: 了，吗，呢，吧 동태조사: 着，了，过 9. 감탄사 喂，啊 10. 동사중첩 11. 진술문: (긍정문, 부정문: 不，没，　别) 12. 의문문

吗，呢，吧，谁，哪，哪儿，什么，多少，几，怎么，怎么样，为什么，多
정반의문문
好吗?, 对吗?, 可以吗?
13. **선택의문문**
14. 명령문: 请，别，不要
14. 감탄문: 太，真，多么(多)，极了
15. 특수문:
是자문, 有자문, 是~的자문(시간, 장소, 방식 강조),
비교문: 比，和(跟)~一样，没有(有)~那么(这么)
把자문, 피동문, 연동문, 존현문, 겸어문
16. 동작의 태
'在~呢' 동작의 진행
'正在'동작의 진행
'了', '过' 동작의 완성
'要~了' 동작(변화) 발생하려고 함
'着' 동작(상태)의 지속

위수광・이길연(2018:130)이 소개한 『新HSK大纲(语法:2015)』에 보면 위와 같은 문장성분 및 특수성분에 대한 제시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新HSK1급	新HSK2급	新HSK3급
결과보어	결과보어 가능보어 정도보어 수량보어 시량보어 동량보어 방향보어 단순방향보어	방향보어 -복합방향보어 -복합방향보어 파생용법
연동문 겸어문: 叫 존현문 是-的구문	겸어문: 让 是-的구문 비교문	연동문(방식) 존재문 비교문 把자문 被자문 叫，让
	인과관계 전환관계	병렬관계 승접관계 점층관계 선택관계 전환관계 가설관계 조건관계

위 문법등급을 보면 방향보어의 파생용법을 포함한 모든 보어가 제시되고, 또한 대다수의 특수문형이 언급되었으며, 복문의 문법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성분이 많이 등장하고, 어떤 성분과 더 결합하며, 3급의 문법등급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孔子学院总部/ 国家汉办主编(2014) 3급 기출문제 제1회와 제2회를 분석하였다.

보어	1회 기출문제	2회 기출문제	합계
결과보어	18개	16개	34개
방향보어	15개	13개	28개
가능보어	3개	2개	5개
정도보어	11개	2개	13개

시량보어	7개	7개	14개
동량보어	5개	10개	15개
수량보어	17개	8개	25개

결과보어는 총 34개로서 '到, 见, 上, 好, 在, 完, 给, 懂, 饱, 明白, 多' 등이었다. 방향보어는 총 28개가 출현하였는데 그중에서 3급 필수단어에 속하지 않는 '起'가 쓰인 문장도 출현하였다.

(18) 我突然想起我把帽子忘在洗手间了。p.76

복합방향보어는 '(走)上去, (拿)下去, (放)进去, (想)出来, (带)回来, (带)回去, (拿)过来' 등이었다. 이 중에서 '(想)出来'의 '出来'는 감추어졌던 것을 노출시키는 의미의 파생용법으로 쓰였다.

(19) 所以也没想出什么好办法来。p.53
(20) 也没想出什么好办法来。53
(21) 这样画出来更好看。p.60

가능보어의 경우 '我听不清楚'와 같은 전형적인 형식도 있고, '记得, 不记得' 같은 특수한 가능보어, 그리고 방향보어와 결합하는 등의 복잡한 가능보어 확장형 등이 등장한다.

(22) 除了记得带护照外 p.22
(23) 还有几件衬衫放不进去。p.13

정도보어의 경우, '她的篮球打得非常好。'같은 전형적인 정도보어문부터 '雪下得越来越大了。'와 같이 복잡한 구가 오는 경우, 그리고 '得'라는 구조조사 없이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极了' 같은 보어도 문장에 출현한다.

(24) 热极了。p.45

시량보어의 경우, '你就去两天' 같은 전형적인 형식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결합구조도 보인다. 또 인칭대명사가 목적어로 올 때 위치를 주의해야 하는 문장도 출현하고 있다. 경과된 시량의 문장도 출현한다.

(25) 你怎么去了那么久 p.44
(26) 我在家照顾了他一天。p.70
(27) 你再等我五分钟。p.74
(28) 我来中国6年了。p.85

동량보어의 경우, '你帮我开一下门吧。'같은 전형적인 문형도 있지만, 인칭대명사가 결합할 때 목적어의 위치에 주의해야 하는 문형도 출현한다.

(29) 你等我一下。p.72

수량보어의 경우, '等一会儿。', '明天天气可能好一些' 같은 전형적인 형식도 보이지만 다음과 같은 복잡한 결합구조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30) 火车站离那儿有多远 p.39

다음은 특수문형의 출현빈도와 특이점을 살펴보았다.

문법포인트	3급 1회	3급 2회	합계
是~的문	5	6	11
비교문	5	3	8
把자문	5	6	11
피동문	0	1	1
연동문	4	9	13
존현문	0	1	1
겸어문	7	4	11

'把자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결과보어가 생략된 문형도 출현한다. 또한 구체적인 동작이 서술어가 아닌 문형도 등장한다.

(31) 我把它们放厨房里? p.14
(32) 我突然想起我把帽子忘在洗手间了。p.76

피동문의 경우 1회 등장한다. 그런데 의미상 피동문은 위수광・이길연(2018:130)에서는 4급에 관련된 특수문형으로 나오지만, 이미 3급에서도 출현하고 있다.

(33) 雪下得越来越大了 p.16

존현문은 제2회에 한 번 출현하는데 다음과 같다.

(34) 前面那条街上新开了一家饭店。p.75[3)]

겸어문은 총 11회 출현한다. 그 중에서 '使' 겸어문은 위수광・이길연(2018:130)에서는 4급에 관련된 특수문형으로 나오지만, 이미 3급에서도 출현하고 있다. 또한 '使'는 '让, 叫'와 달리 사역성이 강하지 않으므로 교학 시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请', 혹은 '有'가 쓰인 겸어문도 자주 등장하고 있다.

(35) 可以使孩子了解不同国家的文化[4)]。p.18
(36) 经常生气容易使人变老 p.89
(37) 运动能使人更健康。p.95
(38) 请邻居照顾它。p.27
(39) 这次比赛你们班有多少人参加? p.78

위와 같은 3급 등급범위가 수험서에는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살펴본다. 남미숙(2016)과 김미나・파고다교육그룹 언어교육연구소(2020)의 문법등급 제시는 다음과 같다.

	A사	B사
결과보어	√	√
방향보어(복합방향보어)	√(√)	√(√)
가능보어	√	√
정도보어	√	√

3) 존현문은 학습자들에게 그 개념을 이해시키는 것 보다는 존현문을 쓰는 이유인 '화제 제시'의 역할을 강조하여 설명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판단됨.
4) 여기서 '使'는 강력한 사역의 의미가 아니라 사건이 자연스럽게 나를 변화게 만드는 역할을 하므로 '叫, 让'과 같은 사역과는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시량보어	√	√
동량보어	√	√
수량보어		
연동문	√	√
겸어문	√	√
존현문	√	
是-的구문	√	
비교문		√
把자문	√	√
피동문	√	√
병렬관계	√	
승접관계		√
점층관계	√	√
선택관계	√	√
전환관계	√	√
가설관계	√	√
조건관계	√	√
인과관계	√	√

3급 수험서의 경우, 2급보다는 전반적으로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겸어문을 설명하면서 '让, 请' 등을 예로 들고 기출문제에 자주 나오는 '有'관련 겸어문은 예로 들고 있지 않다. 2급 수험서와 비슷하게 기출문제 풀이에서는 많은 문법등급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만약 해당 문법등급이 정답과 관계가 없을 때는 언급하지 않거나 약간만 언급하는 경향이 있다.

정리하면, 복합방향보어의 파생용법이 3급 문법등급에 있기는 하지만, 실제 기출문제에서는 많이 출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수문형을 보면 전형적이지 않는 문장형식과 결합형식이 출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기출문제의 출제경향을 알게 되면 교수자는 문법의 설명을 어느 정도까지 진행해야 할지 파악할 수 있다.

Ⅳ. 독해시 고려해야 할 요소

앞에서 언급했던 문법등급을 습득하고, 3급 필수단어 600개만 공부한다면 학습자들은 3급시험 등급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실제 3급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한 3급 문법등급을 벗어나는 문형들이 출현해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독해를 쉽게 진행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4.1 복합적인 성분 결합과 확장결합

3급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한 문장에 하나의 성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성분결합으로 인해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문장이 다수 출현한다.

(40) 女: 爸爸，你来看，我比上个月高了多少? p.13
(41) 大家都说小李比我大一岁。 p.107

'比자문'에서 서술어 뒤에 보어 성분(多少)을 동반하는 것은 전형적인 '比자문'의 범주를 넘어선다고 판단된다. 2급에서 전형적인 '比자문'을 습득한 학습자들에게는 아직 어려운 문법포인트로 인식될 수 있다.

그리고 '路边的树没有现在多。'와 같은 근사치 비교문형은 위수광・이길연(2018:130)에서는 4급에 관련된 특수문형으로 나오지만, 이미 3급에서도 출현하고 있다[5].

5) 단,「新HSK大纲(语法)(2009)」에는 비교문에 근사치 비교인 '没有(有)~那么(这么)'가 언급되어 있다.

(42) 男: 这个行李箱太小了，还有几件衬衫放不进去。p.13

'放进去'는 '进去'라는 복합방향보어가 쓰였다. 복합방향보어는 학습자에게 개념도 쉽지 않지만, 여기에 응용되어 가능보어로 쓰였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다고 인식된다.

(43) 这本书可以买来给孩子读，它介绍了世界上很多国家的节日，可以使孩子了解不同国家的文化。p.18

위 문장에서 '给'는 수혜의 의미를 가지는 '给'로서 전형적인 '给'의 용법과는 차이를 보인다.

(44) 那我先把东西拿到楼下去。p.72

'到'의 용법이 일반적인 결과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동작이 미치는 지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급, 2급에서 문법포인트가 제시되어 있더라도 아주 원형적인 쉬운 문형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특히 3급에서는 앞에서 이러한 문법포인트를 배웠다는 가정 하에 응용구조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수자의 인식이 필요하다.

(45) 我有一个选择题不会，想问问你。p.59
(46) 这次比赛你们班有多少人参加? p.78

위 문장은 겸어문이지만,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不会'가 '选择题'를 뒤에서 꾸미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参加'가 '多少人'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이다.

(47) 男: 我知道了，那我把它们放厨房里? p.14
(48) 怎么起那么早? p.73

위에서 '把자문'이 쓰였는데, 서술어 뒤에 보어 '在'가 생략되어 있다. 이러한 '把자문'은 전형적인 '把자문'에서 응용된 것이다. 또한 '怎么起那么早?'는 조사 '得'가 생략된 문형이다.

(49) 但是他们再也没有办法回到过去，做自己想做的事情了。

이 문장에서 '没有办法'가 미치는 범위는 바로 뒤가 아니라 '回到过去'와 '做自己想做的事情了。'이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위 문장에서 쉼표로 나뉘기 때문에 따로 번역하기 쉽다. 김기범(2014)은 생략현상과 쉼표 범위의 오판으로 인해 잘 못 번역하는 경우를 언급하였다.

(50) 我们可以从一个人选择和什么样的人做朋友了解他，… p.226
(51) 我们也可以从一个人对书的选择上来认识他，… p.226

여기서 '从'은 문장을 목적어로 가지는데, 초급 학습자들은 전치사 뒤에 보통 명사나 명사구만 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긴 문장이 목적어로 올 때 쉽게 번역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나 아래 문장에서는 '从'의 목적어로 구가 와서 더 헷갈리기 쉽다.

위와 같이 복합적인 성분결합과 확장결합, 그리고 생략, 쉼표의 쓰임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잘못된 독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강조되어야 한다.

Ⅴ. 결론

지금까지 新HSK 2·3급 기출문제 문형분석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新HSK 2급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경과된 시량, 복합방향보어, '有'를 쓰는 겸어문, 이합사 등 新HSK2급 문법등급과 일정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新HSK 3급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방향보어의 '起'처럼 문법기능을 하는 성분들이 자주 출현하는 것을 알수 있다. 또 특수문형을 보면 전형적이지 않는 문장형식과 결합형식이 출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독해시 유의할 점으로 생략현상, 쉼표의 번역범위, 그리고 전치사와 결합하는 성분이 명사 뿐만 아니라 구, 문장이 올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향후, 더 많은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경향성을 높이고 수치화하는 작업이 후속작업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최승연(2016),『신HSK 3급 문법문항 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위수광(2011),「『国际汉语教学通用课程大纲(语法)』와 『新HSK大纲(语法)』의 비교분석」,『중국언어연구』, 제34집.

위수광·이길연(2018), "중국어교육문법체계 마련을 위한 考察 — 『国际大纲(2014)』과 『新HSK大纲(2015)』의 비교를 중심으로", 『중국학』, 64: 121-145

中央广播电视大学对外汉语教学中心/김미숙편저(2018), 『착 붙는 新HSK 실전모의고사 2급』, 시사중국어사

해커스HSK연구소(2020), 『해커스 HSK 1-2급』, 해커스

남미숙(2016), 『新HSK 한 권으로 끝내기 - 3급』, 다락원

김미나·파고다교육그룹 언어교육연구소(2020), 『파고다 HSK 3급 종합서』, PAGODA Books.

김기범(2014), 「생략과 복문에 대한 인식오류 분석」, 『중국어문논총』 제62집

孔子学院总部/ 国家汉办主编(2014),『2014 HSK 2급 출제기관 공식 기출문제』, 한국HSK사무국.

孔子学院总部/ 国家汉办主编(2014),『2014 HSK 3급 출제기관 공식 기출문제』, 한국HSK사무국.

【논평문】

新HSK 2·3급 기출문제 문형분석과 그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박용진(전북대학교)

1. 1페이지. 『新HSK大綱(語法)』: 출판연도 제시 요망.

2. 이 부분에 대한 기존연구를 간략하게 서술하면 좋을 듯합니다.

3. 글에 보면, 『新HSK大綱(語法)』과 위수광(2011) 교수의 연구를 언급하면서 「新HSK大綱(語法)(2009)」로 표시하였는데, 이것이 논문 표시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新HSK大綱(語法:2015)』라고 적은 곳도 있습니다. 기호 사용과 서술방법의 통일이 필요합니다.

4. 결과보어는 크게 자기 의미를 가지는 결과보어(예: 懂)와 문법적인 의미를 갖는 결과보어(예: 到)로 나뉠 수 있다. 학습자에게는 후자의 경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다: 到의 경우가 더 어렵다는 이유를 제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5. (1) 你介紹得非常好。p.20 제1회: (1) 你介紹得非常好。(제1회:20) 이런 식으로 수정하면 어떨지 생각합니다.

6. 'Ⅱ. 新HSK2급 문법등급 범위와 기출문제 문형분석'에서 기출문제를 조사한다고 하면서 보어(결과보어, 정도보어, 시량보어, 동량보어, 방향보어), 겸어문, 연동문, 비교문, 이합사 등을 소개하였는데, 내용의 문제보다는 서술의 형태의 문제로 아무런 구분 표시가 없어서 읽기가 편하지 않습니다.

7. '문법포인트'보다는 '문법항목'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8. 'Ⅳ. 독해시 고려해야 할 요소' 장 제목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HSK 문제 풀이가 독해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장 제목을 취하였는지요.

9. '比자문'에서 서술어 뒤에 보어 성분(多少)을 동반하는 것은 전형적인 '比자문'의 범주를 넘어선다고 판단된다.: 이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문제는 '넘어선다'는 객관적 기준/증거를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비교구문은 전체가 몇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비교문의 핵심구조는 무엇이고, 파생구조는 무엇이기에, 이 구조들의 난이도는 어떻게 구성되었고, 따라서 2급에서는 어떤 비교구조를 가르치는 것이 좋고, 어떤 구조를 가르치지 않는 것이 맞기 때문에, 비교구문에서 보어 성분이 있는 것은 2급에서는 출제되면 안 된다고 사료된다는 식으로 정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 'Ⅳ. 독해시 고려해야 할 요소'의 내용은 너무 연구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많습니다.

11. 총평: 중국 정부가 주도한 HSK 지침서 『新HSK大綱(語法)』와 HSK 문제를 비교하여 출제 범위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본다. 단지 연구 논문이기에 객관적인 증거를 더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相等”詞性及相關問題新探

金鐘讚*

▷ 目 次 ◁

1. 序言
2. “相等”動詞說質疑
3. 形容詞“相等”
4. 百分比類複指形容詞“相等”
5. 結論

1. 序言

『現代漢語詞典』(以下簡稱『現漢』)將“相等”界定爲動詞, 認爲它具有“(數目、分量、程度等)彼此一樣”(『現漢』2018:1427)的意思。『學生現代漢語詞典』(以下簡稱『學生』)、『現代漢語規範詞典』(以下簡稱『規範』)、『當代漢語詞典』(以下簡稱『當代』)、『現代漢語分類詞典』(以下簡稱『分類』)等,基本上持與『現漢』相同的觀點。但『中朝詞典』(以下簡稱『中朝』)、『進明中韓大辭典』 (以下簡稱『進明』) 等認爲“相等”是形容詞。

在“彼此一樣”的釋義中, “一樣”是形容詞, “彼此一樣”是形容詞性主謂結構。“相等”意義近似於“彼此一樣”, 有鑑於此, 我們認爲“相等”不一定是動詞, 很可能是形容詞。但衆所周知, 在判定一個詞的詞性時其釋義有重要的參考價值, 但其句法功能是更重要的。因此, 要解決“相等”的詞性, 一定要全面考察其釋義及句法功能等。

本文首先討論“相等”的動詞說, 再探討“相等”的形容詞性, 然後分析百分比形容詞“相等”, 最後提出我們關於“相等”詞性的觀點。

2. “相等”動詞說質疑

『現漢』(2018:1427)關於“相等”的釋義如下:

【相等】 xiāngděng 動 (數目、分量、程度等)彼此一樣: 面積～。

『現漢』將“相等”界定爲動詞, 很多詞典觀點與『現漢』相同。茲擧例如下:

『學生』(2015:1306):

* 안동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相等】 xiāngděng 動 (數目、分量、程度等)彼此一樣: 面積～ | 數量～。

『規範』(2004:1418):

【相等】 xiāngděng 動 (數目、分量、程度等方面)彼此一樣▷兩個班的人數～。

『當代』(2009:1564):

【相等】 xiāngděng 動 (數量、分量、條件、程度等)彼此一樣: 這兩個人體重～。

『分類』(1998:1055):

O392 動: 相等

相等 xiāngděng (數目、分量、程度等)彼此一樣: 價值相等 | 面積相等 | 距離相等 | 在雙方兵力相等的情況下, 勝敗取決於士氣的高低。

以上幾部詞典都認爲"相等"是動詞, 具有"(數目、分量、程度等)彼此一樣"的意思。胡裕樹、范曉在『動詞研究』(1995:135)中有如下論述:

多數語法學家認爲動詞分及物和不及物是很有用的分類, 漢語動詞能够區分也應該區分及物和不及物, 因此在他們的著作裏都有這方面的說明或描寫。……

動詞能够再區分成及物動詞和不及物動詞。在研究漢語語法時將動詞區分及物動詞和不及物動詞是很有用的。及物動詞可分爲動態性及物動詞和靜態性及物動詞兩種。動態性及物動詞肯定具有動作、行爲性, 但在及物動詞中也有不少靜態性及物動詞。例如:

①三加五等於八。(『現漢』p276)
②過去的經驗未必適合當前的情況。(『現漢』p1198)
③北拉接近"老國音"而不同於"新國音"。(『語言文字學的新探索』p99)

以上例句中的"等於"、"適合"、"接近"等動詞都屬於靜態性及物動詞。這種例子在現代漢語中不勝枚舉。及物動詞的必要條件是能帶賓語, 卽一個動詞如果它不能帶賓語, 它肯定不是及物動詞。"相等"具有"(數目、分量、程度等)彼此一樣"的意思時, 具有靜態性特徵, 且其後面不能帶賓語。因此,"相等"不是及物動詞。但是我們認爲"相等"歸於不及物動詞是有問題的。

高更生、譚德姿、王立廷『現代漢語知識大詞典』(1995:72):

不及物動詞 又稱自動詞。指所表示的動作、行爲止於自身不涉及他物的動詞。與及物動詞相對。有的不及物動詞不能帶賓語。包括兩種類型: (1)聯合式結構。表示自身的動作或雙方的動作。如: "咳嗽、休息、生活、出發、勞動、失敗、遊行、比賽、分離、戰鬪、衝突"等。(2)動賓型結構。本身已經帶賓語, 因而除少數結合緊密的, 如: "動員、起草"等可以帶賓語, 是及物動詞外, 一般不能帶賓語。如: "作祟、獵奇、示威、道歉、逃荒、擧重、轉彎、撒謊、開幕、閉幕"等。有的不及物動詞一般不帶賓語, 但可以帶施事賓語, 處所賓語, 不能帶受事賓語。如: "來、去、走、坐、站、跑、跳、逃"等帶施事賓語。

高更生等認爲不及物動詞指的是所表示的動作、行爲止於自身而不涉及他物的動詞, 例如"咳嗽、休息、生活、出發、勞動、失敗、遊行、比賽、分離、戰鬪、衝突、作祟、獵奇、示威、道歉、逃荒、擧重、轉彎、撒謊、開幕、閉幕"等。就這一點來講, 漢語的情況與韓語、英語等完全一致。"相等"不具有動作、行爲的特徵, 那麼它談不上"動

作、行爲止於自身而不涉及他物的動詞”。那麼“相等”也不是不及物動詞。

此外, “相等”不能充當主語或賓語, 因此它不是名詞, “相等”不能作狀語, 故它不是副詞。在現代漢語中“相等”與“相同”之間有很多共同點, 例 如在“排比要求句式相同, 字數大致相等。”(『新編普通話教程』p240)中‘相同“與”相等“之間意思相近, 都不能受程度副詞的修飾, 都能充當述語, 都不能帶賓語。更有趣的是它們之間往往發生對應關係。(相關例句載錄在第3章。)因此我們認爲考察“相同”有助於了解“相等”問題。

『現漢』(2018:1428)關於“相同”的釋義如下:

【相同】 xiāngtóng 形 彼此一樣, 沒有區別: 面積～丨內容～丨今年入學考試科目跟去年～。

『現漢』將“相同”界定爲形容詞, 在中國出版的很多詞典觀點與此相同。茲擧例如下:

『規範』(2004:1420):

【相同】 xiāngtóng 形 彼此一致; 沒有差別 ▷基本～丨意見～。

『當代』(2009:1565):

【相同】 xiāngtóng 形 彼此一樣, 沒有差異: 興趣～丨這兩篇小說的結構是～的丨兩人的水平大致～。

『分類』(1998:1054):

O390 形: 彼此一致,沒有差別: 兩人的興趣愛好相同｜這兩個字讀音相同｜兩篇文章論點相同, 寫法各異。

以上我們考察了一些詞典有關“相同”的情況。『學生』沒收“相同”, 其他詞典都將“相同”歸於形容詞。“相等”如果是動詞, 那麼“相同”也應是動詞, 如果“相同”是形容詞的話, “相等”也應是形容詞, 不能一是動詞, 一是形容詞。前面談到“相同”與“相等”的關係, “相同”對事物或事情的性質具有形容、描寫的功能, 是形容詞。那麼“相等”也對事物或事情的性質具有形容、描寫的功能。因此我們認爲“相等”很可能是形容詞。

3. 形容詞“相等”

在第2章最後面提到“相等”與“相同”的問題。在“相等”中, “相”是副詞性語素, 下面考察一下“相等”的另一個語素“等”。 『現漢』(2018:275):

等 děng ① 名 等級: 同～｜優～。② 量 種; 類: 這～事｜此～人。③ 量 用於 等級: 二～艙｜共分三～。④ 程度或數量上相同: 相～｜～於｜大小不～。⑤ 助……

“相等”的“等”具有“程度或數量上相同”的意思, 現在考察一下“相同”的“同”。

『現漢』(2018: 1312):

同 tóng ⓫形 相同; 一樣:～類丨～歲丨～工～酬丨大～小異丨條件不～丨～是雙手,我爲什麼幹不過他?⓬……

『現漢』認爲“同”具有“相同”的意思時, 它是形容詞, 那麼“等”具有“程度或數量上相同”的意思時,它應是形容詞性語素。[1]既然『現漢』認爲與“等”有關的“對等”、“同等”、“均等”、“平等”、“不等”都是形容詞, 爲什麼它却將“相等”

1) 『現漢』(2018:276):

界定爲動詞呢?“相等”的“等”具有“程度或數量上相同”的意思, 是形容詞性語素。如前所及, 『現漢』給“相同”的釋義是“彼此一樣, 沒有區別”, 給“相等”的釋義“(數目、分量、程度等)彼此一樣”。『現漢』、『學生』、『規範』、『當代』、『分類』關於“相同”、“相等”的釋義相似, 它們將“相同”歸於形容詞, 而將“相等”歸於動詞, 這顯然是自相矛盾的。

『中朝』(1986:1809):

【相等】xiāngděng 形 같다, 대등하다 ‖ 兩間房子的大小 ~ 두 방의 크기가 같다

『進明』(1993:2855):

【相等】xiāngděng 形 (수량·분량·정도 등이) 같다, 대등하다.

『中朝』(1986:1811):

[相同] xiāngtóng 形 서로 같다, 똑 같다 ‖ 今年考試的科目跟去年~올해 시험 과목은 지난해와 똑같다 | 兩篇文章的論點是~的 두 문장의 결론은 다 같다.

『進明』 (1993:2857) :

【相同】xiāngtóng 形 같다, 똑 같다.

『中朝』、『進明』對“相等”、“相同”等的釋義跟『現漢』、『學生』、『規範』、『當代』、『分類』等其他詞典基本上相同, 但對它們詞性的觀點很不一樣, 『中朝』、『進明』與『現漢』、『學生』、『規範』、『當代』、『分類』等不同, 認爲“相等”是形容詞。[2)]

張壽康、林杏光也在『現代漢語搭配詞典』(以下簡稱『搭配』)(1992:1282)中有如下敍述:

相等 xiangděng 形 (數目、分量、程度等)彼此一樣。
【謂】 ①名 +~: a. 數目~:……

張壽康、林杏光在『搭配』(1992: 1284)中有如下敍述:

相同 xiangtóng 形 彼此一致, 沒有區別。
【謂】 ①名 +~: a. 時間~, | 日期~, 事情~,地點~, 人物:~, 範圍~, 環境~景物~b……

【等於】děngyú 動①某數量跟另一數量相等: 三加二~五。②差不多就是, 跟……沒有區別: 不識字就~睜眼瞎子 | 說了不聽, ~白說。

“等於”是及物動詞, 形容詞性語素“等”是“相同”的意思, “於”是“跟”的意思。

2) 房玉淸在『實用漢語語法』(1996:74)中有如下論述:

(4)一般不能帶賓語。但有些單音節形容詞也能以施事爲賓語或以數量詞爲賓語。例如:
大了一歲 紅着臉 慢了一分鐘 糊塗死我了

形容詞是沒有動作、行爲性的詞, 而只有一些單音節形容詞能以施事爲賓語或以數量詞爲賓語, 這與及物動詞相同, 但絶大多數形容詞不能帶賓語。雖然有時形容詞與及物動詞之間有糾纏不淸的地方, 但我們認爲絶大多數的形容詞和及物動詞的差異主要在於能不能帶賓語上, 而形容詞和不及動詞詞的差異在於是否具有動作、行爲性上。及物動詞不一定具有動作、行爲的特性, 而不及物動詞一定具有動作、行爲性。

張壽康、林杏光將“相等”與“相同”都歸於形容詞是很有道理的。“相等”能表明事物的屬性，也能充當謂語，那麽“相等”應是形容詞。[3]基於這種認識，看一下例句。

①【均等】①㊢均匀；相等：機會~。(『現漢』2018:717)
案：『現漢』中“均等”是形容詞，“均等”的釋義“均匀”、“相等”也都是形容詞。
②它們之間的關係不是像單純詞那樣是一致的、相等的，　而是各式各樣的、複雜多變的，　其中也有規律性的東西。(『現代漢語詞彙』p282)
案：“一致”與“相等”之間有並列關係，“一致”是形容詞，“相等”也是形容詞。
③對偶着重看結構形式，要求字數相等，結構相同或相似；對比不管結構形式，只看內容。　(『語文知識千問』p247)
案：“相等”與“相同”、“相似”之間有對應關係。“相同”、“相似”是形容詞，“相等”也是形容詞。[4]
④“住在約翰樓上的姑娘”和“天下最醜的姑娘”所指對象相同，兩個詞語的外延相等。　(『語義學』p72)
案：“相等”與“相同”之間有對應關係。“相同”是形容詞，“相等”也是形容詞。

4. 百分比類複指形容詞“相等”

一般來說，形容詞和動詞的主要區別在於能不能受程度副詞“很”的修飾。依據這一標準來考察“相等”的話，它不可能是形容詞而只是動詞。因此爲了澄清這一問題，我們認爲需要進一步討論。

關於反義詞，謝文慶在『反義詞』　(1998:27)中有如下論述：

詞的反義關係是指詞在詞彙意義上相反或相對，然而，詞的詞彙意義同語法 意義又有密切的聯繫。從詞性來看，具有反義關係的詞都是同詞類的，所以研究反義詞時能够注意到它們的詞性類別，對於掌握其內部特點是頗有益處的。

謝文慶在『反義詞』(1988:107)中又有如下叙述：

……“不同”的反義詞是“相同”……

謝文慶認爲“不同”與“相同”之間有反義詞關係。反義詞之間的詞性應相同，故“不同”與“相同”都是形容詞,這主要與“同”的形容詞性有一定的關係。在“有人說這些詞的理性意義(cognitive meaning)相同，而感性意義(emotional meaning)不同。”(『語義學』p114)中“相同”與“不同”之間既有對應關係又有反義詞關係，　這裏的“相同”與“不同”都是形容詞。基於這種認識，現在考察一下形容詞“相等”的反義詞。

『現漢』　(2018:106)：

【不等】 bùděng ㊢ 不相等;不一樣；不齊：數目～丨大小～丨水平高低～。

『現漢』說“不等”有“不相等”的意思，可見“不等”與“相等”之間有反義詞關係，“數目不等”、“大小不等”、“水平高低不等”等都可以寫成“數目相等”、“大小相等”、“水平高低相等”。在“聲母和輔音不相等”(『普通話教程』p34)中“不相等”可以寫成“不等”。我們可以說“子音和輔音相等”。以上例句中的“相等”與“不等”都是形容詞。這主要與“等”的形容詞性有一定的關係。在“現代漢語中‘mouton’一詞的意義可以和英語詞‘sleep’的意義相等,但是兩者的值(value)不

3) 與“相等”有關的詞還有“不等”,『現漢』(2018:106)關於“不等”的釋義如下：

【不等】bùděng ㊢ 不相等；不一樣；不齊：數目 ~丨大小 ~丨水平高低~。

“不等”是由“不”加上形容詞性語素“等”構成的形容詞。在有關“不等”的釋義中，　如“不相等”、“不一樣”、“不齊”等，　“相等”、“一樣”、“齊”都是形容詞，　而“不相等”、“不一樣”、“不齊”都是形容詞性偏正結構或偏正式形容詞。一般來講，反義詞是詞性相同而詞義相對或相反的一組詞。“不等”與“相等”之間有反義詞關係 “不等”是形容詞，那麽“相等”也應是形容詞。

4) 韓語中的“相等하다”是形容詞(參見『國語大辭典』p1500)。韓語有關“相等하다”的詞性能間接證明“相等”形容詞說。

等。”(『語義學』p111)。中“相等”與“不等”之間既有對應關係又有反義詞關係, 它們都是形容詞。[5)]

謝文慶提到具有反義詞關係的詞的詞性相同,那麼形容詞“相等”的反義詞“不等”肯定是形容詞。『現漢』不應將“相等”與“不等”分別歸於動詞與形容詞,這是自相矛盾的。“相等”、“不等”中“等”是具有“程度或數量上相同”, 是形容詞性語素。“相等”與“不等”是由形容詞性語素“等”構成的形容詞。“等”本身沒能分程度之高低, 那麼由這種“等”構成形容詞“不等”、“相等”都沒有程度高低之分的性狀, 故不能受程度副詞“很”修飾。

在現代漢語中, 程度副詞除了修飾形容詞和心理動詞外, 還可修飾其它動詞。刁晏斌在『現代漢語史』(2006:355)中, 對這一問題有所論述:

> 能受程度副詞修飾的動詞大致都具有以下兩個特點:一是動作性較弱, 像“跑、跳、吃、打”之類動作性非常强的動詞就很難進入這一結構;二是動詞所表示的動作行爲會有程度義, 比如“配合”, 就有程度的差異, 由低到高的級差是:不太配合——比較配合——很配合——非常配合。

刁晏斌認爲動詞如果動作性較弱, 而且能表示程度義的話, 它可以受程度副詞的修飾。這很符合語言實際。

① 我十分 擅長利用視覺系統腦區來記憶事情。(『巧用腦科學學英語快1倍』p51)
② 這時字母的性質就變得很 接近輔音。(『語音學教程』p36)
③ 我認爲, 還是香港傳媒的做法比較厚道, 也更 符合社會利益。(『眞實的言說』p271)
④ 這倒更 便於他爲黨搜集和傳遞情報。(『銀灰色的領帶』p90)

以上例句中“擅長”、“接近”、“符合”與“便於”都是靜態性及物動詞, 且能分程度, 故能受程度副詞的修飾。相反, 如果形容詞不能區分程度, 就不能受程度副詞的修飾。我們還注意到形容詞“相等”不能受程度副詞“很”的修飾, 因此我們有必要進一步討論這一問題。

石毓智在『漢語語法』(2015:318)中關於形容詞有如下論述:

> 典型的百分比形容詞有以下這些:
> 一致 同一 垂直 平行 等同 雷同 混同 同類 同輩 同步 相同 相等 相反 相配 相稱 相當 相仿 相投 相左 不同 不對 錯誤

它們只能受“完全”類形容詞修飾, 不能受“很”類程度詞修飾。例如:

(9) a.那兩條馬路完全平行。
*那兩條馬路最平行。
b.兩個工程的進度完全同步。
*兩個工程的進度比較同步。
c.他們兩個的條件完全不同。
*他們兩個的條件很不同。

> 在百分比類形容詞中, 有些可以受“完全”類副詞修飾, 如“完全一樣、部分一樣、幾乎一樣”等, 有些則只能受其中幾個副詞修飾, 如可說“完全垂直、幾乎垂直”, 但不能說“*部分垂直”, 等等。

石毓智認爲典型的百分比形容詞不能受“很”類程度副詞的修飾, 而能受“完全”類副詞的修飾。但“很一致”、“很同步”、“很相配”、“很相稱”、“很相投”、“很不同”、“很不對”等是能够被接受的, 可見石毓智的例證有些問題。但他將“相等”、“相同”等界定爲百分比類形容詞[6)]是有道理的。在實際語言運用中, “同一”、“垂直”、“平行”、“等同”、“雷

---

5) 反意詞之間的詞性是相同的。“相等”的反意詞是“不等”,而“相同”的反意詞是“不同”。“不等”與“不同”都是形容詞, 這一點更能支持我們關於“相等”詞性的觀點。

6)石毓智在『漢語語法』(2015:317)中有如下論述:
此類形容詞所代表的性質程度跟上面的量級序列類的不一樣, 它們雖然也是非定量的, 但它們所表示的對屬性程度高低的

同”、“相同”、“相等”等等百分比形容詞不能受“很”類程度副詞的修飾，而能受“完全”類副詞的修飾，因爲它們不能劃分等級。[7]相反，“相似”、“相近”、“相配”等因爲能區分程度，故能受程度副詞“很”的修飾。“不等”與“相等”一樣屬於百分比類形容詞，但它們不能分程度，故它不受程度副詞“很”的修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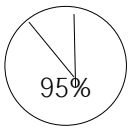
李臨定在『現代漢語動詞』(1990:125)中，關於複指動詞有如下論述:

> 第七章討論了複指動詞。複指動詞中的大部分同時也是內動詞,如:“相遇、相持、相好、相擾、相抵、相關、相處、相等、相符”……

李臨定認爲“相遇、相持、相好[8]、相擾、相抵、相關、相處、相等、相符”屬於複指動詞。所謂複指動詞，是指跟它有關係的主語是複數的，當主語是單數時，可以帶上充當狀語的介詞結構。[9]在李臨定所舉的例子中，“遇”、“持”、“擾”、“抵”、“關”、“處”、“符”等都是動詞性語素，在它們前面有表示“互相”的“相”，如“相遇、相持、相擾、相抵、相關、相處、相符”都是偏正式動詞。但在“它們之間的關係不是像單純詞那樣是一致的、相等的，而是各式各樣的、複雜多變的，其中也有規律性的東西。(《現代漢語詞彙》p282)”、“對偶着重看結構形式，要求字數相等，結構相同或相似；對比不管結構形式，只看內容。(《語文知識千問》p247)”、“‘住在約翰樓上的姑娘’和‘天下最醜的姑娘’所指對象相同，兩個詞語的外延相等。(《語義學》p72)”等中的“相等”的“等”不可能是相當於及物動詞“等於”，而只是具有“相同”、“一樣”等意思的形容詞性語素“等”，故“相等”是偏正式形容詞。李臨定誤將形容詞“相等”歸於複指動詞。

李臨定只提出了複指動詞，其實在現代漢語中除了複指動詞之外，還有複指形容詞。基於這種認識，看一些詞：

判斷，依賴於一個參照物的性質程度。該類詞的數量特徵可以用下圖表示。



這裏設定參照物的程度爲100%，然後才能確定有關事物程度的高低。從外在的形式看，典型的百分比類形容詞不能被“有點兒－很－最”程度詞序列修飾，只能爲以下表示比例的副詞修飾：“完全、全部、幾乎、部分(大部分、小部分)”。不是每一個百分比類的形容詞都可以用這些副詞修飾。還有一部分動詞也可以受“完全”類副詞的修飾，比如“完全支持他的意見”、“完全符合我們的要求”等。這就涉及動詞和形容詞劃界的問題。我們的標準是看能否帶賓語，不能帶賓語的是形容詞，否則就是動詞。意義則作爲一個參考項，即劃分出來的形容詞應該明顯是表示性質狀態的。

7) 基於這種認識，看一下例句;

①應該注意的是，在(10)的結構裏，有一部分與“小李打小王”的深層結構完全相同。(『語言的結構』p55)

②概念義完全相等。(『現代漢語詞彙』p134)

8) 『現漢』(2018: 1426):

【相好】xianghao ⓫形 彼此親密，感情融洽:他們倆從小就～。.....⓮動 戀愛(舊時多指不正當的，下④ 同)。....

9) 李臨定在『現代漢語動詞』(1990:128)中，有如下論述:

12.4.1 “聯合”類。如:

聯合: [內動]你們雙方要～起來。[外動]你們要～對方

團結: [內動]咱們要～起來。[外動]我們要～對方

配合: [內動]你們要很好地～。[外動]你要認眞～他

……

上邊列的“聯合、團結、配合”等動詞都是複指動詞(見第七章)，它們要求和多個個體發生關係。當和這種動詞發生關係的多個個體作爲一個整體、在句中用一個短語(常是複指動詞)指代時，這種動詞則呈現爲內動詞，如上邊[內動]項下所舉各例；當和這種動詞發生關係的多個個體不是作爲一個整體，而是分爲主動者和受動者兩個部分，在句中用兩個短語來指代時，這種動詞則呈現爲外動詞，如上邊[外動]項下所舉各例。

“聯合”類內動詞和外動詞的句法關係可以用下式表示:

內動: N(主動者·群體)←V

外動: N(主動者·群體)←V→N(受動者·群體部分)

李臨定在此談到了複指動詞兼類，即不及物動詞的和及物動詞的兼類現象。複指動詞所顯示的動作行爲要求兩個或兩個以上的參與者(或相關者)發生關係，而不是和單一的參與者發生關係。(『現代漢語動詞』p78)如果複指動詞只跟它前面的部分發生關係，則它是不及物動詞，如果複指動詞除了與前面的主語發生關係之外，還帶賓語的話，它就是及物動詞。李臨定基於這種認識，判定在“你們要很好地配合”中，“配合”只與“你們”有關係，故它是不及物動詞，而在“你要認眞配合他”中，“配合”與“你”、“他”都發生關係，故它是及物動詞。

①相近: 形 ①近似; 差不多: 年歲～｜情況～。②彼此距離近: 住所～。(『現漢』p1428)
②相配: 形 配合起來合適; 相稱:一個粗, 一個細,不～｜他們兩個很～。(『現漢』p1428)
③相似: 形 相像: 這兩個人年貌～。(『現漢』p1429)
④相像: 形 彼此有相同點或共同點: 面貌～。(『現漢』p1429)
⑤相同: 形 彼此一樣, 沒有區別: 面積～｜內容～｜今年入學考試的科目跟去年～。 (『現漢』p1629)
⑥相仿：形 大致相同；相差不多：年紀~｜顏色~。 (『現漢』p1428)

以上例句中的“相近”、“相配”、“相似”、“相像”、“相同”、“相仿”等除了『現漢』之外,『學生』、『規範』、『當代』、『分類』、『中朝』、『進明』等詞典將它們歸於形容詞, 它們都屬於偏正式複指形容詞, “相等”也是屬於一種偏正式複指形容詞。

4. 結論

綜上所述, 我們得出如下的結論:

第一, 《現漢》、《學生》、《規範》、《當代》、《分類》等大多數詞典都認爲“相等”是動詞。我們先將動詞分析爲不及物動詞和及物動詞。“相等”不能帶賓語, 故不是及物動詞; 其次, 它不具有動作、行爲性, 故也不是不及物動詞。

第二, “相等”在現代漢語中常常與形容詞“一致”、“相同”、“相似”等形容詞發生並列或者對應關係,這主要與“相等”具有形容、描寫事物或者事情的性質、狀態的屬性。故“相等”是形容詞。《中朝》、《進明》、《搭配》等詞典都認爲它是形容詞, 這有道理。

第三, “相等”與“相同”一樣屬於百分比類形容詞, 是不能區分程度的, 故不受程度副詞“很”的修飾。

第四, 在現代漢語中除了複指動詞以外,還有複指形容詞。“相等”與“相近”、“相配”、“相似”、“相像”、“相同”等一樣是偏正式複指形容詞。

【參考文獻】

北京大學漢語語言學研究中心現代漢語語料庫 http//ccl.pku.edu.cn
戴煒棟等 主編, 『現代英語語言學概論』; 上海, 上海外語教育出版社, 1998.
『當代漢語詞典』編委會編, 『當代漢語詞典』, 北京, 中華書局, 2009.
董大年 主編, 『現代漢語分類詞典』,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1998.
符淮青, 『現代漢語詞彙』, 臺北, 新學林有限出版股分公司, 1988
弗朗西斯·麥克納布, 『不要叫我怪老頭』, 南京, 鳳凰出版傳媒集團, 2009.
高更生、譚德姿、王立廷 主編, 『現代漢語知識大詞典』,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1995.
洪萬植、李福洙、李圭海、陳庚八, 『中朝詞典』, 北京, 中國民族出版社, 1986.
金鐘讚, 「“靠近”的詞性詞義探究」, 首爾,『中國語文論叢刊』第45輯,2019.
金鐘讚, 「“述語”說之再檢討」, 首爾,『中語中文學』第63輯,2016.
克洛德·海然熱, 『語言人』,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2.
李臨定, 『現代漢語動詞』,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0.

李臨定、許小穎 編著, 『現代漢語短語解析詞典』, 北京, 商務印書館, 2008.
李熙昇 編, 『國語大辭典』, 韓國首爾, 民衆書林,1981.
李行健 主編, 『現代漢語規範詞典』, 北京, 外語教學研究出版社, 2004.
劉利、龐月光, 『語法應用通則』, 沈陽, 春風文藝出版社, 1999.
林燾、王理嘉, 『語音學教程』,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2.
劉斌 主編, 『囚女』, 長春, 時代文藝出版社, 2002.
劉興策、邢福義、晏炎吾、何金松、鄧黔生、劉安海編著, 『語文知識千問』,武漢, 湖北教育出版社,1983
盧福波, 『對外漢語教學實用語法』, 北京, 北京語言大學出版社, 2011.
魯川、王玉菊, 『漢字信息語法學』,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2008.
呂冀平,『當前我國語言文字的規範化問題』,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00.
呂叔湘, 『現代漢語八百詞』, 北京, 商務印書館, 1999.
呂叔湘, 『中國人學英語』,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5.
彭小川、李守紀、王紅, 『對外漢語教學語法釋疑201例』, 北京, 商務印書館, 2016.
求曉瑞, 『暗戀』, 北京, 中國工人出版社, 2002.
石毓智,『漢語語法』, 北京, 商務印書館, 2015.
宋玉柱, 『現代漢語語法論集』, 北京, 北京語言學院出版社, 1996.
宿春禮 編著, 『思路決定出路』, 北京, 中國和平出版社, 2006.
孫國慶 編著, 『交出來的好朋友』,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2007.
王得春, 『語言學概論』, 上海, 上海外語教育出版社, 1997.
王菊泉、鄭立信 編, 『英漢語言文化對比研究』, 上海, 上海外語教育出版社, 2004.
王蒙, 『我的人生哲學』,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12.
王渝光、王興中 主編, 『語言學概論』, 昆明, 雲南大學出版社, 2005.
吳光華 主編, 『漢英大辭典』, 上海, 上海交通大學出版社, 1999.
吳潔敏 編著, 『新編普通話教程』第二版, 杭州, 浙江大學出版社, 2000.
吳正, 『黑白滬港』, 上海, 學林出版社, 1997.
謝文慶, 『反義詞』, 武漢, 湖北教育出版社, 1988.
辛菊 主編, 『現代漢語』,北京, 清華大學出版社, 2014.
徐烈炯, 『語義學』, 北京, 語文出版社, 1995.
『學生現代漢語詞典』編委會, 『學生現代漢語詞典』, 重慶, 重慶出版社, 2013.
楊自儉、李瑞華 編, 『英漢對比研究論文集』, 上海, 上海外語教育出版社, 1997.
葉景烈, 「說"於"」, 『語言大觀』,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00.
易中天, 『讀城記』, 上海, 上海文藝出版社, 2006.
余秋雨 等著,『收獲散文精選』, 昆明, 雲南人民出版社, 2002.
『語文學習』編輯部 編, 『語言大觀』,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00.
喻雲根 主編, 『英漢對比語言學』, 北京, 北京工業大學出版社, 1994.
云桂彬 編著, 『語言的結構』, 北京, 北京廣播學院出版社, 2000
張惠平,『眞實的言說』, 北京, 中國城市出版社, 1999.
張建軍,『銀灰色的領帶』,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2001.
張雲徽,「漢語動、介組合及其他」『雲南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昆明, 雲南民族大學出版社,

2005.
趙傑, 『漢語語言學』, 北京, 朝華出版社, 1997.
趙世開 主編, 『漢英對比語法論集』, 上海, 上海外語教育出版社, 1999.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現代漢語詞典』, 北京, 商務印書館, 2018.
朱文雄, 『漢語語法教學論綱』, 南寧, 廣西人民出版社, 2000.

<Abstract>

A Study on the Word Classification of the Term “Xiangdeng”

Xiandai Hanyu Cidian is one of the dictionaries that is popular among Chinese scholars. Although the dictionary is well written, we can still find some problems in it, and one of them is about “Xiangdeng”.

It describes “Xiangdeng” as a verb. At present, lots of dictionaries published in China also follow Xiandai Hanyu Cidian, such as Xuesheng Xiandai Hanyu Cidian, Dangdai Hanyu Cidian, Xiandai Hanyu Guifan Cidian, Xiandai Hanyu Tujie Cidian, HSK Ciyu Yongfa Xiangjie, Hanyu Jiao Yu Xue Cidian, and Xiandai Hanyu Fenlei Cidian. But I do not agree with them.

According to my research, “Xiangdeng” is not related with actions or behaviors, so it can not be an intransitive verb. “Xiangdeng” can not be a transitive verb, because it can not take objects. If we analyse the term “Xiangdeng”, “Xiang” has the character of adverbs, and “Deng” of adjectives, then the combine of “Xiang” and “Deng” can be amalysed as an adjective. Actually, there are many examples similar to this in Modern Chinese.Generally speaking, adjectives can be modified by degree adverbs like “Hen”, “Zui” and so forth. But not all the adjectives can be modified by these sorts of adverbs, for example “Xiangtong”, “Yiyang”. The term “Xiangdeng” is one of them. And when the “Xiangdeng” is followed by “Yu”, the function of “Xiangdengyu” is similar to a transitive verb. Therefore the structure of “Xiangdengyu” can take objects. In my opinion, the explanation of the term “shiyi” should be translated as follows:

【shangdang】 xiāngděng Adjective (shumu, fsnliang, chengdu and so force) bici yiyang: mianji～｜Zhe liang jian fangzi de mianji～。

Key words : 形容詞 Adjectives, 動詞 Verbs, 及物動詞 Transitive Verbs, 賓語 Object, 述語 Predicate

【논평문】

“相等”詞性及相關問題新探

金玲敬(江西師範高等專科學校教授)

김종찬 선생님의 《“相等”詞性及相關問題新探”》 논문을 처음 받아보았을 때 어법을 전공하지 않은 본 토론자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전문적인 어법 분야의 논문에 대해 이리저리 품평하고 토론하기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며 이 분야에 대한 지식도 일천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찬찬히 읽어 볼수록 토론자와 같은 문외한도 저자의 논지를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 이에 맞춰 저자의 주장과 논지를 전개하였으며, 이를 잘 뒷받침하는 예증이 구체적이고 충실하였으므로 많이 배울 기회가 되었다.

본 토론자 또한 중국어를 사용하면서 ″相等″이라는 단어를 적잖이 사용하였지만, 이 단어의 품사에 대해서는 한 번도 동사라고 생각해보지 않았다. 어법 전공이 아니라 어휘의 품사에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이긴 하지만, 너무나도 당연히 형용사로 인식하고 사용해왔다. 오히려 이를 동사로 보는 관점이 주류라는 것을 알고 놀랐을 정도이다. 따라서 이 논문을 읽으며, 공부하는 학생의 자세로 돌아가 이 어휘를 동사로 볼 수 없는 근거와 형용사 특히 ”百分比類” “偏正式夏指形容詞”로 보아야 한다는 저자의 논증을 분석하듯 자세히 살펴보았고 결론적으로 저자의 견해에 완전히 동의하게 되었다.

다만 초보적이고 그리 깊지 않은 어법적 소양을 가진 토론자라도 타 전공 연구자이기에 감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었다. 비록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시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랄 뿐이다.

3장 형용사 “相等” 부분에서 문법적 성격과 의미가 비슷한 “相同”을 들어 “相等”이 형용사라는 점을 부각했는데, 글자 하나하나의 본의(本義)와 인신의(引申義)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자학 연구자의 관점에서는 “同”과 “等”은 엄연한 의미적 차이가 존재한다. “同”은 본래 “같은 공간에 모인다”[1]는 뜻으로 동사에서 출발해 “같은 공간”이라는 의미소를 시작으로 “같다”와 “같이”라는 의미가 파생 되었으며, 본디부터 정도나 수량 등의 높낮이의 뜻이 없다. 반면 “등”은 “가지런히 놓인 죽간”[2]이라는 의미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가지런히”라는 의미소가 내포되며 여러 파생 의미가 생겼다. 즉 “等”은 정도나 수량이 같다는 의미 이전에 “사물과 사물 사이에 존재하는 가지런한 질서”와 같이 일정한 정도의 거리 높낮이의 구분, 내지는 이를 정리하여 정제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같은 공간에 함께 모이며” “같이 한다”는 의미를 가진 “同”과 어느 정도 거리 혹 등급의 질서 속에서 “같음”을 뜻하고 “등급을 구분하는” 의미를 가진 “等” 을 동일시 할 수는 없지 않을까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고대 한어에서부터 “等”이 “程度、數量相等”을 의미하는 형용사로 사용되었다는 점[3]에서 연속성을 찾는 방법을 생각해보시기를 건의 드린다.

이 논문을 읽으면서 너무 잘 짜인 논리 구성과 예증 덕분에 다른 전공임에도 많은 공부가 되었다. 이 지면을 빌려 저자께 감사의 말씀 전한다.

---

1) 段玉裁《說文解字注》 : “同，合會也。从冃口。口皆在所覆之下。是同之意也。”

2) 段玉裁《說文解字注》 : “等,齊簡也。齊簡者、疊簡冊齊之。如今人整齊書籍也。引伸爲凡齊之偁。凡物齊之。則高下歷歷可見。故曰等級。”

3)《廣雅·釋詁四》 : 等，齊也。 ;《左傳·文公十五年》 : 示有等威。 ;《荀子·富國》 : 等賦府庫者，貨之流也。

뉴버전 HSK 고등급(7~9급) 독해영역의 대비책과 교수학습 방안

한승*

▷ 目 次 ◁

1. 서론
2. 본론
  1) 급속히 증가한 어휘량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2) 독해 교수 - 학습 방안
3. 결론

1. 서론

2010년 2월까지 시행되었던 (旧)HSK의 고등급(9~11급)은 듣기, 독해, 작문, 구술 등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최소 요구 어휘량은 8700자 정도였다. (旧)HSK의 고등급은 아무리 전체 점수가 높아도 한 영역이라도 기준점수가 미달일 경우, 급수를 부여받지 못했다. 2010년 3월부터 개편되어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新)HSK(고등6급)는 듣기, 독해, 작문 등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최소 요구 어휘량은 5000자 정도이다. (新)HSK(고등6급)는 영역별 과락 없이 취득 총점이 180점 이상이면 급수를 부여받을 수 있다.

(旧)HSK의 평가방식은 '학습자들이 무엇을 얼마나 아는지'에 중점을 두었던 반면, (新)HSK(고등6급)는 '학습자들이 무엇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에 주안점을 둔다.[1] (旧)HSK(고등9~11급)의 최소 요구 어휘량이 8700자 정도였다면, (新)HSK(고등6급)의 최소 요구 어휘량은 5000자이다. 이처럼 漢辦(한빤)에서 (新)HSK의 최소 요구 어휘량을 대폭 감소시킨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필자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많은 어휘와 어법들을 숙지하기보다는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어휘들을 정확히 익히고 활용하게 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문제의 난이도가 낮아졌고, (旧)HSK에 비해, 급수를 취득하는 데에 영역별 과락이 없어, 6급을 획득한 학습자들이 대폭 증가하였다. 비록 (新)HSK(고등6급)을 획득하였지만, 중국 현지에서 석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중국어 전공자 혹은 해외 중문학 연구자에게는 부족한 점이 많아, 漢辦(한빤)은 HSK 고등급에 대한 난이도 조정을 고려한 것이다.

사실 HSK 중등급도 결코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 외국에서는 HSK 중등급으로도 무난히 취업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HSK 시험에 대한 수요가 타국과 비교도 안 되게 높은 탓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고등급을 취득하여서, 취업전선에서 중등급 성적은 결코 경쟁력이 없다.[2] 2010년 이전 (旧)HSK시절 안

* 단국대학교 자유 교양 대학 초빙교수 (tsinghuahan@daum.net)

1) 문정혜, <새로운 중국어평가방식(新HSK)도입에 따른 문법교육에 대한 소고(小考)>, 《중국과 중국학》, 제17호, 영남대학교 중국연구센터, 2012.09, P228。

2)최근에는 HSK 한국사무국에서 응시자 비율에 대해 공개를 하지 않지만, 2010년 기준으로 HSK에 응시한 한국인은 5,0000명에 도달했다. 참고: 위수광, 이길연, <중국어교육문법체계 마련을 위한 考察:『国际大纲(2014)』과 『新HSK大纲(2015)』의 비교를 중심으로>, 《중국학》, 제64호, 대한중국학회, 2018.09, P122。

정적으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고등 9~10급 증서가 필요했고, 현행 (新)HSK는 최소 6급의 220~230점은 되어야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 HSK 3.0뉴 버전 시대에는 최소 고등급 7급 이상이어야 취업전선에서 경쟁할 수 있고, 8급을 받게 되면 안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새로 개편될 HSK3.0버전과 현행 (新)HSK를 비교해보면, 뉴 버전인 중등6급의 필수 어휘량조차도 5400자로 (新)HSK(고등6급)보다 400자가 더 많고, 고등(7~9)급의 필수 어휘는 11,029자로 현행 (新)HSK(고등6급)과 비교하면 두 배가 훨씬 넘는 양이다. 게다가 번역과 구술까지 추가될 예정이다. 이를 보면, HSK3.0(고등7~9급)버전은 현행 (新)HSK(고등6급)은 물론, (旧)HSK의 고등급(9~11급)보다도 난이도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 HSK의 급수 유효기간은 단 2년으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취업전선에서 중국어를 스펙으로 삼은 학습자들에게 HSK 3.0 뉴 버전은 피할 수 없다. 새로 개편될 HSK3.0버전의 영역과 문제 유형은 현재까지도 논의 중이어서 아직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았다. 게다가 아직 漢辦(한빤)에서 구체적인 大綱이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의 내용은 필자가 漢辦(한빤)에 문의해보고, HSK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 지인들과의 토론을 통해 알게 된 대략적인 독해영역의 출제 방향과 대비책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2. 본론

문제의 난이도에 대해 언급한다면, HSK 3.0 중등(6급)은 현행 (新)HSK(중등5급)보다는 어렵고, (新)HSK(고등6급)보다는 쉽다고 한다. (旧)HSK(중등6~8급)의 어휘량이 2000~5000자 정도였다. 이를 미루어 봤을 때, HSK 3.0 중등(6급)의 난이도는 (旧)HSK(중등6~8급)와 거의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HSK 3.0 고등(7~9급)의 난이도는 (旧)HSK(고등9~11급)보다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旧)HSK 시대에 漢辦(한빤)이 아닌 北語(베이징 어언대)에서 주최한 HSK(고등9~11급)의 독해가 매우 실용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었으며, 지문도 길고 어려웠는데, HSK 3.0 고등(7~9급) 독해의 어려운 문제들은 그 정도 난이도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급속히 증가한 어휘량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많은 학생들은 어휘가 두 배가 넘게 증가하게 되는 HSK 3.0 고등(7~9급)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현행 (新)HSK(고등6급)의 모든 문제가 필수 어휘 5000자 이내의 범위에서만 출제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떤 학생은 최근에 필수 어휘 목록집에 분류되어있는 5000자를 다 암기하고 시험을 봤는데 결과는 120점으로 통과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현행 (新)HSK(고등6급)에 출현한 어휘들은 이미 필수 5000자 어휘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필자가 작년에 응시했을 때, 최소 9000~10000자 정도의 어휘가 출현했던 것 같았다. 필자가 생각할 때 (新)HSK(고등6급)의 필수 어휘 5000자는 2010년 이전에 정했던 기준이다. 지금은 이미 11년이 지났다. 10년 남짓한 시간 동안, 많은 신조어들이 출현하였고, 난이도도 상향조정되어 최근 시험문제는 최초 시행된 기출문제와 비교하면 이미 비교도 안 되게 어려워졌다.

하지만 현재도 정답에 대한 단서는 대부분이 필수 어휘 5000자에 있고, 그 외의 어휘들은 수험생들을 교란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필자가 말하고 싶은 점은 HSK 3.0 고등(7~9급)에서 필수 어휘가 11,029자로 증가될 이유는 현행 (新)HSK(고등6급)에 출현한 어휘들 중에 필수 어휘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많은 어휘들이 필수 어휘로 분류될 것이기 때문이다.

(1)문어체 어휘의 증가

「最新HSK(六級)詞彙(拼音版)」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눈에 잘 뜨이는 구어(口頭語)들인 '喝(마시다)', '惦(달다)', '飮食(음식)', '飮料(음료)' 등은 현행 (新)HSK(고등6급)의 필수 어휘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喝(마시다)'와 동일한 의미를 지녔지만 현재 단음절 형식으로 잘 활용되지 않은 '飮(마시다)'과 '惦(달다)'과 동일

한 의미를 지녔지만 역시 현재 단음절 형식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은 '甘(달다)' 등과 같은 서면어(書面語)들은 필수 어휘목록에 포함된 어휘들이 아니지만, 기출문제에 출제된 적이 있다.

漢武帝**飮**而"**甘**美之"(15. 09 독해4 기출) (한무제는 그 술을 마시고 "달고도 아름답다"고 하였다.)

현대중국어의 어휘는 크게 구어(口頭語)와 서면어(書面語)로 나누어진다. 구어(口頭語)는 언중(言衆)들에 의해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회화체 언어인 반면, 서면어(書面語)는 주로 일반 문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언어이다. 사실 서면어(書面語)는 고대시기의 구어(口頭語)의 기초로 형성된 언어이다. 서면어(書面語)는 고대부터 존재했던 어휘로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었지만, 훗날 출현한 新語에 밀려 쇠퇴한 후에 더 이상의 발전 없이 고대의 모습을 그대로 지닌 채 오늘날까지 계승되어 온 어휘이다. 그래서 '飮(마시다)'과 '甘(달다)'와 같은 서면어(書面語)는 현대 중국어에서 단음절 형식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3] 따라서 이들은 현행 (新)HSK(고등6급)의 필수 어휘목록에 포함이 안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HSK 3.0 고등(7~9급)에서는 이러한 서면어(書面語)들도 일부는 필수 어휘목록으로 유입될 것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고문틱한 어휘로 구성된 구절들이 종종 출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수자들은 어휘들을 의미장으로 묶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어(口頭語)와 의미가 동일하지만 거의 쇠퇴한 서면어(書面語)들을 분류하여 그들이 현대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할 필요도 있다.

(2)신조어의 증가

중국은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2010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터넷과 앱의 발달에서부터 코로나 시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가? 빠른 사회적 변화에 따라 신조어들도 많이 생성되었다. 비록 현행 (新)HSK(고등6급)의 필수 어휘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2010년 이후 출현한 신조어 예를 들면, '二維條形碼(QR코드)'로 구성된 구문이 독해 4부분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다.

因爲**二維條形碼**可以存儲个人照片、聲音、指紋、**虹膜**、基因狀況等綜合信息，假冒分子就很難**得逞**。(14년 HSK기출 문제집) (QR코드에는 개인 사진, 음성, 지문, 생리홍채, 유전자 등의 종합정보가 저장될 수 있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손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

위의 구문에는 비단 '二維條形碼(QR코드)' 외에도, '虹膜(생리홍채)', '得逞(목적에 도달하다)' 등은 2010년 이후 출현한 신조어가 아니지만, 현행 (新)HSK(고등6급)의 필수 어휘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위의 구문을 통해 (新)HSK로 도입된 지 몇 년 지나지 않았음에도 신조어는 물론 필수 어휘목록에 불 포함된 어휘들이 문제로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HSK 관계자들은 비록 현행 (新)HSK(고등6급)의 필수 어휘목록에 불 포함되어 있지만, 출제빈도가 높았던 어휘들과 2010년 이후 출현한 신조들이 HSK 3.0 고등(7~9급)의 필수 어휘목록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하였다. 나날이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신조어를 모르면 현지인들과 소통할 수가 없다. HSK는 외국인 학습자들의 종합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만약 HSK에 기존의 어휘만 등장하고 신조어가 나오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중국어 능력을 평가한다는 HSK 시험의 본질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

학습자들이 신조어를 많이 익히기 위해서는 매스컴을 많이 활용해야 하지만, 매체에 접하기를 두려워하는 학습자들이 부지기수이다. 따라서 교수자들은 먼저 2010년 이후로 출현한 핫한 신조어들을 매스컴과 각종 자료들을 통해 분류하여 수집할 필요가 있다. 2010년 이후로 생성된 신조어로 예를 들면, '微信(위챗)', '微信紅包(위챗용돈)', '二維條形碼=二維碼(QR코드)', '掃碼(QR코드를 스캔하다)', '霸凌(따돌리다)', '甩鍋(책임전가)', '撸

3)한 승, <'更换'류 어휘의 특징연구>, 《중국언어연구》, 제90호, 한국중국언어학회, 2020.08, P152。

串(고기 먹다)', '月光族(월급을 다 써버리는 무리)', '共享單車(공유 자전거)', '新冠肺炎(코로나)', '核酸檢測(코로나 검사)', '最美逆行者(가장 아름다운 역행자)', '新冠白痴(코로나사태기간 무책임한 행위를 한 사람)', '隔离追劇(격리기간 드라마 몰아보기)', '云喝酒(클라우드 술파티)', '云聚餐(클라우드 회식)' 등이 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2022년 첫 해에는 아마 각종 앱에 관련된 문제, 코로나 시기에 진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묘사하는 독해 문제 등이 출제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위에 제시한 신조어 외에도 관련 독해지문들을 바이두에서 찾아서 설명하고 연습시킬 필요가 있다.

(3)사자성어의 증가

사자성어는 고급어휘이다. 사자성어는 고대시기부터 청조말기까지 두 글자 이상의 한자어가 고정형식으로 굳어진 구절을 말한다. 현행 (新)HSK(고등6급)에서 필수 어휘목록에 포함된 사자성어는 약 103개에 불과하다. HSK 3.0 고등(7~9급)에서는 300개 이상으로 증가될 전망이라고 한다. 필자가 현행 (新)HSK(고등6급)의 기출문제들을 분석한 결과「最新HSK(六級)詞彙(拼音版)」에 수록된 성어들이 출제된 경우도 있었지만, 일부 문제들 중에는 필수 어휘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실생활에서도 상대적으로 보기 드문 '毋庸置疑', '拍案叫絶' 등과 같은 성어들이 출제되기도 하였다.

> 독해 2영역: 水是人体的重要組成物質，多喝水的好處是(　　)的。(14 기출 모음집)
> (물은 인체의 중요한 조성 물질이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은 것은 (　　)이다.)
> A博大精深(학식이 넓고 심오하다)　B微不足道(보잘 것 없다.)　C不可思議(상상할 수 없다.)
> √D毋庸置疑(틀림없다.)
>
> 독해 4영역: 梁武帝讀后，拍案叫絶，立卽令人送去刻印，刊之于世。(14 기출 모음집)
> (양무제는 읽은 후에 탁자를 치며 외쳤다. 곧바로 사람을 보내 등사한 후, 세간에 간행하였다.)
> "拍案叫絶"最可能是什么意思？
> √A极力称贊(극찬하다)　B非常憤怒(매우 분노하다)　C受到惊嚇(놀래다)　D感到意外(의외라고 여겼다)

독해 2영역의 문제에서 문맥상 괄호 안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성어는 '毋庸置疑'이다. 이 성어는 학습자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다. '毋庸置疑'을 분석해 보면, '毋'의 의미는 '无(없다)'이고, '庸'의 의미는 '需要(필요하다)'이며, '置疑'의 의미는 '怀疑(의심)'이므로, 전체적인 의미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이다.

독해 4영역의 항목 중 하나인 '拍案叫絶'은 '극찬하다'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성어임을 사전에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학습자들에게는 이 성어 자체가 생소할 것이다. '拍案叫絶'을 직역하면 '탁자를 치며 외치다'이다. 탁자를 치며 외치는 행위는 극찬일 수도 있지만, 분노일 수도 있다. 문맥을 살펴보면 '拍案叫絶'은 극찬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독해 2영역의 항목인 A~C는 모두「最新HSK(六級)詞彙(拼音版)」에 수록된 성어들이지만 정답이 되지 못했고, 도리어 수험생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D가 정답이 된 점과, 독해 4영역에서도 다소 생소하며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는 '拍案叫絶'을 제시하여 정답을 찾게 하는 점들을 미루어 봤을 때, 출제자들은 수험생들이 반드시 생소한 성어들까지 숙지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생각하는 출제자의 의도는 아래와 같다.

첫째, 출제자들은 수험생들이 '毋'와 '庸'과 같은 기본적인 문언문 어휘를 숙지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疑'를 통해 다소 생소할 수 있는 '置疑'가 '의심'의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임을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拍案', '叫絶'과 같은 상용 한자어들의 표면적 의미를 이해한 상태에서, 성어인 '拍案叫絶'이 내포한 의미를 문맥상 파악하게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개편될 HSK 3.0 뉴버전에서는 물론 필수 어휘목록에 300개 이상의 성어들이 유입될 것이기 때문에

그 성어들을 우선순위로 정해놓고 학습하면 되겠지만, 필수 어휘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학습자들에게 매우 생소할 수 있는 성어들도 제법 많이 출제될 수 있다. 즉, 구성된 한자어의 개별적인 의미의 분석을 통해 전체적인 의미를 판단해야 하는 '毋庸置疑', '拍案叫絶' 등과 같은 생소한 사자성어들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HSK 3.0 뉴버전(고등7~9급)에서 요구하는 필수 단음절 한자량이 3000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수자들은 현행 (新)HSK(고등6급)의 필수 어휘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자주 등장하는 성어들을 제시하여 그 구성요소인 한자어의 뜻풀이를 해주고, 동일한 한자어로 구성된 성어들을 제시하여 학생들을 연습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于'로 구성된 사자성어들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다. '于'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 고문틱한 어휘로, 그것으로 구성된 사자성어들은 매우 많다. 일부 관련 성어들은 아래와 같다.

> ①无濟于事(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安于現狀(현실에 만족하다)
>
> ②出于自愿(자발적으로 나오다), 出于被迫(압박으로 나오다), 青出于藍(청은 남색에서 나오다)

①에 제시한 성어들은 '于'의 후미에 주어가 판단할 대상이 있으므로 이때 '于'는 '對(~에 대해)'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②에 제시한 성어들은 '于'의 앞에 동사인 '出(안에서 밖으로 나가다)'이 있으므로 '于'는 '從(기준점에서 부터)'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 외에도 다른 의미를 내포한 '于'로 구성된 사자성어와 또 다른 고문틱한 어휘인 '以'로 구성된 성어에 대해서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필자의 판단으로 문어체 한자어휘들과 몇몇 고문틱한 어휘들의 개념과 특징을 제대로 숙지하면, 많은 성어들을 수월하게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어려운 독해 문장을 만나도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4)각종 어휘의 증가

증가하는 어휘들 중에 동의어와 유의어도 많다고 한다. 예를 들어, 현행 (新)HSK(고등6급)의 필수 어휘목록에 '賓館(호텔)', '驕傲(교만하다)', '欺負(괴롭히다/따돌리다)' 등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들과 의미가 각각 동일한 '酒店(호텔)', '傲慢(교만하다)', '欺凌(괴롭히다/따돌리다)' 등도 필수 어휘목록에 포함된다고 한다.

그리고 현행 (新)HSK(고등6급)의 필수 어휘목록에 포함된 어휘들 중 출현빈도가 빈약했던 한자어휘의 파생된 어휘들이 대폭 증가한다고 한다. 예를 들면, '凹' 혹은 '凸'로 구성된 어휘와 '購'로 구성된 어휘는 현행 (新)HSK(고등6급)의 필수 어휘목록에 적은 양으로 존재한다. '凹凸'와 '采購(구입하다)', '購物(물건을 구매하다)')만 존재한다. 뉴 버전의 필수 어휘목록에는 '凹' 혹은 '凸'에서 파생된 '凹陷(움푹 들어가다)'과 '凸顯(뚜렷이 드러나다)' 등이 추가될 것이고, '購'로 구성된 어휘는 '購買', '選購', '搶購一空' 등으로 확대될 것이다.

또한, 예를 들면, '吃醋(질투하다)', '穿小鞋(괴롭히다)', '侃大山(한담하다)', '隨大流(대세에 따르다)', '吃鴨蛋(빵점맞다)', '一鍋粥(뒤죽박죽)', '有雨下子(솜씨가 뛰어나다)'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지만, 현행 (新)HSK(고등6급)의 필수 어휘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관용구들이 필수 어휘목록으로 유입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현행 (新)HSK(고등6급)의 필수 어휘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용어휘 혹은 자주 이슈가 되었던 어휘들이 유입된다고 한다. 예를 들면, '詐騙(속이다)', '陷阱(함정)', '違約(위반하다)', '條例(조례)', '揣(추측하다, 품다/넣다)', '揣測(헤아리다)' 등이다.

물론 현행 (新)HSK(고등6급)의 필수 어휘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어휘들이 지금도 출제되고 있다. 하지만 학습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교수자들은 현행 (新)HSK(고등6급)의 필수 어휘목록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향후 필수 어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용어휘들을 수집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어휘의 맹목적인 암기는 향후 개편될 HSK 3.0 고등(7~9급)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수자들은 반드시 한자어의 원리와 파생된 어휘들을 차례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2)독해 교수 - 학습방안

언어적 환경에 놓여야 효과를 보기 쉬운 듣기에 비해, 독해는 유학을 가지 않아도 학습자의 노력에 의해 얼마든지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영역이다. 듣기는 들려주는 시간 내에 핵심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면 기회가 없다. 독해는 듣기에 비한다면 생각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다. 하지만 유학경험이 없는 학습자들은 물론, 현지에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조차도 독해의 고득점을 못 받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학습자들이 목록표에 지정된 어휘들 위주로만 학습했기 때문이다. 특히 처음 HSK 고등급에 도전하는 학생들은 5000자만 암기하면 무조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상술한 1)-(3)에서 제시한 문제 유형을 봐서 알겠지만, 현행 (新)HSK(고등6급)에서도 학습자들에게 생소한 어휘들이 종종 출제되고 있다. 현행 HSK 뿐만 아니라, (旧)HSK(고등9~11급)에서도 지정된 필수 어휘 목록표 외의 어휘들이 자주 출현했었다. 필자가 봤을 때, 학습자들이 아무리 많은 어휘들을 암기한다 해도 꼭 모르는 단어는 나올 수밖에 없다. 출제자들은 출제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여러차례 출제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목록 범위 내의 어휘들만으로는 많은 문제를 출제할 수가 없다. 부득이하게 목록 범위 외의 어휘들도 활용할 수밖에 없다.

둘째, 어휘의 정확한 의미적 특징을 모른 채 맹목적으로 암기했기 때문이다. 현행 (新)HSK(고등6급)에서도 모든 독해영역에 어휘의 정확한 의미적 특징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와 구성요소인 한자어휘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해독할 수 있는 성어와 구절들이 제법 많이 출제되고 있다. 곧 개편될 HSK 3.0 고등(7~9급)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더 많이 출제될 전망이므로 이제 맹목적인 어휘의 암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셋째, 학습자들의 글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과거에 시행되었던 1.0버전과 현행 2.0버전의 독해 기출문제들을 분석해 보면, 주어진 시간에 비해, 문제가 많았다. 게다가 고문틱하거나 난해한 구문들로 구성된 문장들도 많으며, 외국인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어휘들도 종종 출현한다. 출제자가 독해문제를 이렇게 출제한 의도는 무엇일까? 바로 학습자들이 사전에 중국에 관한 다방면의 배경지식을 쌓길 원하기 때문이다. 독자들은 아는 주제의 글에 더욱 반응을 보인다. 독자가 글을 대하게 되면, 표본을 추출하고, 자신의 지식과 비교하여 조화시키려 한다. 글 정보는 배경지식을 활성화시키고, 배경지식은 다시 글에 내재된 것에 대한 기대를 유발한다. 이것은 본래 무의식적이고 상호작용적인 과정으로 독자가 글과 배경지식을 조화시킬 때까지 계속되어, 결국 이해에 이르게 된다.[4] 곧 개편될 HSK 3.0 고등(7~9급)에서는 현행 HSK보다도 더 다양한 주제들이 나올 것이고, 독해지문의 길이도 더 길어질 전망이니 학습자들이 다방면의 배경지식을 쌓아야함은 불가피하다.

넷째, 전통문법에 의존한 학습을 해왔기 때문이다. 과거에 시행되었던 1.0버전과 현행 2.0버전의 독해영역에 틀린 문장을 찾는 문제 유형은 꼭 출제되고 있다.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무의식적으로 구문이 잘 해석이 안 되거나, 겉보기에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어 보이는 것만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필자가 (新旧)HSK의 독해 1영역(修改病句)을 상세히 비교해 보니, (旧)HSK는 모두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는 부분만 찾으면 되었지만, (新)HSK는 문법적 오류 외에도 문장구조의 오류, 어휘의 오류, 문맥 오류 등 다양하게 출제되고 있다. 곧 개편될 HSK 3.0 고등(7~9급)도 修改病句영역은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어, 반드시 전통문법에 의존한 학습방법에서 탈피하여 의미론적 혹은 화용론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학습방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곧 개편될 HSK 3.0 고등(7~9급) 독해에 대비하기 위한 필자의 교수학습 방안은 아래와 같다.

첫째, 성어량과 고문틱한 문장, 그리고 파생된 어휘들이 증가한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단음절 한자어휘의 정확한 개념과 의미를 파악해야 함은 필수 불가결하다. 필자의 생각으로 약간 번거로울 수는 있겠지만, 교수자들은 가끔 한자 검정 1급의 배정 한자에서 비교적 어려운 한자들을 선별하여 그 뿌리를 설명할 필요가

4) Beatrice S. Mikulecky, BeaMikulecky,《A Short Course in Teaching Reading Skills》, Addison Wesley PublishingCompany, 1990, p3.

있다. 그리고 학습자들에게 가급적 많은 단음절 한자를 암기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필자가 생각하기에 향후 개편될 HSK 3.0 고등(7~9급)에는 최근 이슈가 되었던 코로나 관련 문제(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한 사연과 삶의 변화), 4차 산업혁명과 휴대폰 앱 사용으로 인한 삶의 변화, 전자화폐, 우주과학 등과 외국인들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국 언어와 문화, 역사 예를 들면, 간체자의 형성과정, 全聚德의 유래, 차 문화, 표준어와 방언의 관계 등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교수자는 이러한 경제, 법률, 과학 관련 글들과 늘 출제가 되어왔던 언어, 역사, 문화에 관련된 내용들을 수집하여 수시로 설명하여 학습자들이 다방면의 배경지식을 쌓을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학습자들은 1.0버전과 현재 소지하고 있는 2.0버전의 기출과 모의고사 문제 등에 수록된 언어, 역사, 문화와 관련된 독해지문들을 철저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송시간이 30분 이내인 新聞30分을 시청하면서 학습자 본인의 호기심을 자극했거나,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사건 관련 기사 내용을 바이두에서 검색하여 읽는 습관을 가지면, 배경지식 활성화에 적지 않은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셋째, 修改病句영역의 문제 수준은 아마 현행 (新)HSK(고등6급)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장구조의 오류, 어휘 활용의 어류, 문맥 오류 등 의미론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교수자들은 (新)HSK(고등6급)의 독해 1영역의 기출 및 모의고사 문제들을 유형별로 자주 풀이를 해주고, 학습자들이 문장을 보고 구조와 문맥을 신속하며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다. 당연히 출현빈도가 높은 어휘들도 수집하여 그들이 이해하고 올바로 활용할 수 있게 설명해줘야 한다. 만약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문제를 모두 활용했다면, 바이두에서 중국 초중고 학생들 대상인 어문 修改病句영역의 문제들을 수집하여 활용할 필요도 있다. 현행 (新)HSK(고등6급)의 독해 1영역의 일부 문제들 중에 중국 학생들의 어문 修改病句 영역의 문제에서부터 약간 변형된 것이 있는 점으로 보아, 향후 개편될 HSK 3.0 고등(7~9급)에서는 修改病句(틀린 문장 찾기) 문제를 출제할 때, 틀림없이 중국 학생들의 어문 修改病句영역의 문제들을 더 많이 활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3. 결론

새로 개편될 HSK3.0버전의 영역과 문제 유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大綱이 나온 것이 아니다. 본고는 漢辦(한빤)에 문의해서 알게된 내용과 HSK 업무를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들은 내용들 위주로 서술한 것이므로, 본고의 내용이 다소 필자의 주관적인 색채가 짙다고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중국 교육부에서 석, 박사 단계의 중국 유학 중국어 전공 및 중국학을 연구하는 외국인 학습자의 중국어 수준을 평가하기에 현행 (新)HSK(고등6급)으로는 부족하다고 발표한 이상 HSK 3.0 고등(7~9급)의 난이도가 높아질 것임은 기정 사실이다. 다만 시험 난이도를 어디까지 높여야할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 중이라고 한다. 3.0버전의 독해문제 유형이 아직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1영역은 역시 修改病句(틀린 문장 찾기)이고, 2영역은 綜合填空(괄호에 어휘 선택하여 넣기)이다. 1~2영역은 현행 2.0버전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3~4영역은 1.0버전과 비슷하거나 좀 더 어려울 수 있다고 한다.

1.0버전인 (旧)HSK(고등9~11급)가 '학습자들이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현행 2.0버전인 (新)HSK(고등6급)은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해 학습자들이 무엇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에 주안점을 둔다.[5] 곧 개편될 3.0버전인 HSK(고등7~9급)의 평가 목적은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과 전문적인 내용들을 숙지하는 데'에 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현행 (新)HSK(고등6급)의 필수 어휘목록에 고급수준의 학습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상용어휘들이 많이 누락되어 있다. 또한 (新)HSK가 도입되기 시작한 2010년부터 현시점까지 10여 년 동안 중국은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수많은 신조어들도 출현하였다. 학습자가 비록 HSK 고급증서를 소지하고 있어도, 중국인들과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상용어와 신조어들을 전혀 모르고 있다면 이는 진정한 고급실력이라고 할 수 없다.

5)문정혜, <새로운 중국어평가방식(新HSK)도입에 따른 문법교육에 대한 소고(小考)>, 《중국과 중국학》, 제17호, 영남대학교 중국연구센터, 2012.09, P228。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를 높여 개편하는 것은 매우 옳은 일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필자가 생각하기에 수험생들과 교수자들은 곧 개편될 3.0버전인 HSK(고등7~9급)의 난이도에 대해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다.

상술한 바와 같이 현행 (新)HSK(고등6급)에 출현한 어휘들은 이미 최소 9000~10000자 정도에 달한다. 즉 현행 (新)HSK(고등6급) 필수 어휘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생소한 고문틱한 어휘, 고급 상용어휘와 신조어들이 이미 빈번히 출제되고 있지만, 이들이 아직 필수 어휘들로 분류되지 않은 것뿐이다. 또한, 독해의 모든 영역의 난이도가 2010년 초반과는 비교도 안 되게 높아졌다. 심지어 중국 고등학교 어문수준에 도달한 매우 난해한 일부 修改病句의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다. 그래서 필자가 생각할 때 개편될 3.0버전인 HSK(고등7~9급)의 독해 난이도가 현행 (新)HSK(고등6급)와는 비교도 안 되게 높아질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필자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공부방법은 금년 말까지는 현행 (新)HSK(고등6급)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는 것이다.

필자가 (新)HSK(고등6급)의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旧)HSK(고등9~11급)의 기출문제들을 재활용한 문제들도 제법 많음을 발견했다. 시험이 매달 실시되는 이상 이전 기출문제의 재활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수자들은 기출문제들 중에 학습자들이 제법 어려워하거나 난이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문제들을 수집하여 학습자들에게 분석해주고, 가능하다면 문제를 약간 변형해서 제시할 필요도 있다.

【參考文獻】

문정혜(2012), 「새로운 중국어평가방식(新HSK)도입에 따른 문법교육에 대한 소고(小考)」, 『중국과 중국학』, 제17호.

문정혜(2012), 「'新HSK' 필기평가(6급)에서의 문법교육 一考」, 『중국어문학논집』, 77호.

이강재 외3명(2014), 「(신)HSK에 대한 한국의 중국어 교육자·학습자 인식 조사연구」, 『중국어 교육과 연구』, 제19집.

위수광, 이길연(2018), 「중국어교육문법체계 마련을 위한 考察:『國際大綱(2014)』과 『新HSK大綱(2015)』의 비교를 중심으로」, 『중국학』, 제64호.

한 승(2020),「'更換'류 어휘의 특징연구」,『중국언어연구』, 제90호.

Beatrice S. Mikulecky, BeaMikulecky(1990),『A Short Course in Teaching Reading Skills』, Addison Wesley PublishingCompany, 1990.

陳豔紅(2019), 「新HSK6級閱讀題型及應試策略研究」, 『山東師範大學』碩士論文.

【논평문】

뉴버전 HSK 고등급(7~9급) 독해영역의 대비책과 교수학습 방안

한희창(한양대학교)

개인적으로 HSK 3.0뉴 버전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알게 되어 매우 반가운 연구라고 여겨집니다.

한승연구자님의 본 연구에 대해 몇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구체적인 大綱이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의 내용은 필자가 漢辦(한빤)에 문의해보고, HSK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 지인들과의 토론을 통해 알게 된 대략적인 독해 영역의 출제 방향~”

사적인 교류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은 어떤 측면에서는 업무상 내용이 유출된것으로도 볼 수 있을 텐데 이것을 논문에 언급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발표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

(新)HSK(고등6급) (新)HSK(중등5급) 등의 표현을 쓰셨는데, (新)HSK는 초 중 고등의 구분을 따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급이 고등 정도에 해당된다고 암묵적으로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정확히 꼭 그러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6급 180점 학생의 실력은 이전 구 HSK 의 고급 수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6급을 고등으로 5급까지를 중등으로 분류하게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新)HSK 급수에 중등 고등을 부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부기가 내용의 이해를 오히려 어렵게 하고 가독성을 떨어뜨린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3.

필수 어휘 5000자만 암기하는 것으로는 고득점을 받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필수 어휘 5000자를 암기한 학습자라면 언어 환경과 맥락을 통해서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생소한 어휘가 있다고 해도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자들이 원서를 보고 원어로 된 뉴스를 검색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여겨집니다. 모든 단어와 표현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의미와 핵심 주제를 파악할 수는 있으니까요. 모르는 단어를 일일이 찾으면서 원서를 보지는 않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필수 어휘 5000자의 암기 만으로 고득점을 받기 어렵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의 고득점을 말하는 것인 것 명시할 필요도 있으며, 주장자체에도 좀 더 설득력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필수 어휘 5000자를 암기한 학습자들이라면 자연히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갖추고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들은 스스로 다양한 중국사이트를 검색하면서 신조어를 접하고 익힐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교실 수업에서 필수 어휘 5000자를 암기한 학습자들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수업하는 것은 다소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어떻게 신조어와 추가된 어휘들을 학습하는 것이 좋은지 학습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 연구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중국어 왕복이동 동사의 용법과 의미

이선희*

▷ 目 次 ◁

1. 왕복이동
2. 왕복이동의 다양성
3. '擺', '晃', '搖'의 출현과 복합어 구성
  1) 출현빈도의 차이
  2) 복합어 구성의 비대칭성
  3) 복합어의 사용 빈도 변화
  4) 복합어의 출현 시기 차이
4. 통사용법 차이
5. 의미 특징과 어휘 결합 양상
  1) 의미유사성
  2) 어휘결합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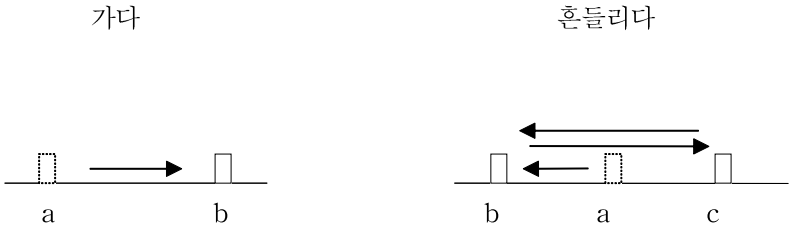
1. 왕복이동

움직이고 이동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것보다 인지적으로 현저하며, 이에 대한 지각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지능력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이러한 운동과 이동을 나타내는 '이동 표현(motion expression)'은 언어학계에서도 관심 있게 연구되는 주제이다. 특히, 최근 인지언어학계에서는 이동을 하나의 틀, '이동 사건'으로 파악하고, 이를 구성하는 개념적 단위들의 융합 양상에 따라 언어를 구분하였다. 또한 물리적 공간에서의 객관적인 이동에서 추상적 공간에서의 주관적이나 가상적 이동으로의 확장에 대해 설명을 시도하였다. 그 연구 성과는 인지적 보편성을 바탕으로 언어의 통사, 의미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이후에 중국어와 한국어학계에 많은 이동 표현에 관한 연구들로 이어졌으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많은 언어 현상들이 밝혀지게 되었다. 그동안의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중국어는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 '來／去(오다/가다)'와 방향보어로 사용되는 동사들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한국어 역시 '가다/오다'와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학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한 이동이 하나 더 있다. 바로 '흔들리다'로 대표되는 왕복 운동이다. 왕복 운동은 짧은 시간 내에 서로 다른 방향(주로 상반된 방향)으로 이동을 반복하는 것을 가리킨다. 본고는 이러한 단시간의 왕복 이동(reciprocating motion)도 이동의 일종이라고 본다. '가다'와 '흔들리다'가 의

* 계명대학교 중국어문학전공 교수 (shlee007@kmu.ac.kr)

미하는 두 가지 이동의 모습을 도식으로 비교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왼쪽 도식에서 '來/去'가 나타내는 것은 목표물이 한 장소 a에서 다른 장소 b로 이동함을 가리킨다.(a→b) 이에 비해, '擺', '晃', '搖'이 나타내는 것은 목표물이 원래 장소 a에서 상반된 두 장소 b와 c 사이를 반복 이동함을 가리킨다.(a→b↔c) 전자는 일회성 이동인 반면, 후자는 반복 이동이라 할 수 있다.

중국어에서 이러한 왕복 이동의 '흔들리다'를 나타내는 동사는 '擺', '晃', '搖'과 이들로 구성된 합성어 '搖晃', '搖擺', '擺動', '晃動', '搖動', '動搖' 등 상당히 다양하다. 이들의 의미는 한국어로 거의 대체로 '흔들리다'로 풀이된다. 하지만 한국어에는 '흔들(리)다', '진동하다' 정도가 대표적이다.[1)]

그렇다면 중국어에서 '흔들리다'의 개념을 나타내는 이들 동사들은 의미와 용법에서 차이가 있을까,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본고는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위의 세 왕복 이동 동사 '擺', '晃', '搖' 및 그 합성어의 의미와 통사 용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2. 왕복 이동의 다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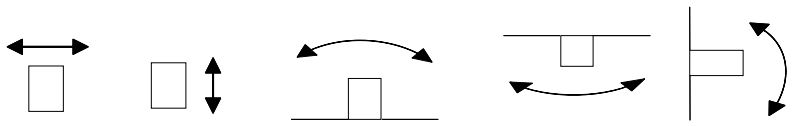
왕복 이동의 이미지를 자세히 생각해보면 하나의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동 방향에 있어 좌우, 상하, 전후 왕복 등 다양한 이동의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왕복 운동의 형태에 따라서도 직선과 곡선 운동으로 나눌 수 있다. 또 이동의 주체에 따라 사물 전체가 이동하는지 아니면 한쪽이 고정된 채 일부분만 이동하는지의 차이도 있을 것이다. '搖動'을 예로 들어보자.

(1) a. 搖動的樹
b. 搖動的秋千
c. 搖動的窗戶
d. 搖動的船

'搖動'이 각각 '나무'와 '그네', '창문', '배'를 수식하는 명사구이다. 그런데 이 명사구에서 왕복 이동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흔들리다'의 구체적인 이미지는 각각 다름을 알 수 있다. a의 '搖動的樹'는 일반적으로 뿌리는 고정된 채 윗부분의 가지와 잎만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b에서 '搖動的秋千'는 이와 달리 대체로 윗부분은 고정된 채 아랫부분만 이동하는 것이 연상된다. c의 '搖動的窗戶'는 창틀에 있는 창문이 바람 등으로 인해 양옆 혹은 앞뒤로 반복 이동하는 것을 나타낸다. 하지만, 여닫이 창문이 열려 있을 경우 한 쪽 옆면이 창틀에 고정된 채 앞뒤로 이동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마지막 d '搖動的船'는 물결에 따라 배 전체가 왕복운동을 하는 것을 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모두 '搖動'이라는 동일한 동사를 사용하였지만 사실 왕복 이동의 구체적인 이미지는 사물 전체의 직선 운동 외에도 한쪽이 고정된 추의 왕복 운동, 즉 일종의 포물선 운동, 불규칙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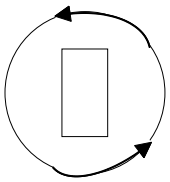
1) 그 외 한중 두 언어에서 '오다'와 '가다'를 나타내는 동사가 함께 사용된 경우도 있다. 한국어는 두 동사의 어근에 연결어미 '(으)락'이 결합하여 굳어진 '오락가락 하다'와 '왔다 갔다 하다'가 있고, 중국어는 '来回', '来去', 등이 이에 해당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경우는 논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다.

으로 어지럽게 이동하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왕복 이동을 영상도식으로 나타내면 대략 다음과 같다. 물론 이 외에 더 다양한 모습도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蔣紹愚(2006)는 '운동'의 개념역을 사물의 운동(物的運動), 사람의 운동(人的運動), 사람에 의한 사물의 운동(人使物運動)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사람에 의한 사물의 운동은 다시 발로 의한 운동과 손에 의한 운동으로 나누고, 후자는 다시 손에 의한 포물선 운동과 손에 의한 직선 운동으로 구분한 바 있다. 그런데, 왕복 운동은 이들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왕복운동의 이미지와 관련하여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搖'의 의미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이다. 중국어에서 비교적 늦게 등장한 '搖号', '搖獎机' 등의 어휘를 보면, '搖'가 직선이나 추의 왕복운동이 아닌 원형운동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들 어휘는 숫자가 적인 공들을 통 안에 넣고, 통 자체를 돌리거나 공기를 쏘거나 바닥을 회전함으로써 공을 불규칙적으로 회전시키고, 추첨하는 것에 '搖'을 붙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고는 이때 '搖'의 의미가 원래 직선 형태 또는 포물선 형태의 왕복운동에서 원형 형태의 왕복운동으로 확장되었다고 본다. 이의 도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상으로 왕복 이동을 나타내는 어휘가 나타내는 이미지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이처럼 다양한 이미지가 앞에서 언급한 중국어 왕복 이동 동사들, 즉 '擺', '晃', '搖', '搖晃', '搖擺', '擺動', '晃動', '搖動', '動搖'에 모두 나타날까? 이들은 통사적, 의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 본고는 北京大學中國語言學研究中心 CCL現代漢語 코퍼스를 기반으로 하여 이들 왕복 이동 동사의 통사 용법과 의미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중시를 받지 못한 또 하나의 이동, 즉 왕복 이동에 관해 살펴봄으로써 중국어 이동 동사의 특징을 밝히려는데 목적이 있다.

3. '擺', '晃', '搖'의 출현과 복합어 구성

1) 출현빈도의 차이

『現代漢語頻率詞典』과 CCL現代漢語 코퍼스에 나타난 이들의 출현회수(빈도)이다.

어휘	『現代漢語頻率詞典』 횟수(빈도)	CCL現代漢語 코퍼스
擺	196 (0.01491)	3,4498
晃	13 (0.00099)	9,366
搖	270 (0.02054)	36,474

위의 표를 보면, '搖'는 『現代漢語頻率詞典』의 조사에는 총 270회 출현으로 세 동사 가운데 출현빈도가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CCL現代漢語 코퍼스에도 마찬가지이다. '搖' 다음으로는 '擺'와 '晃'의 순이다. 그런데 특히 '擺'의 경우, 여러 가지 의미항목이 있는 다의어이기 때문에 '흔들리다'의 의미로 사용된 용례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2)]

搖 > 擺 > 晃

2) 복합어 구성의 비대칭성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擺', '晃', '搖'는 서로 조합하거나 동사 '動'와 결합하여 유사한 의미의 복합어를 만든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하나는 '擺', '晃', '搖'의 결합 가능성에 대한 비대칭성이다. '搖'를 첫 글자로 하며 나머지 두 동사를 결합시킨 합성어인 '搖晃', '搖擺'는 존재하지만, '晃'이나 '擺'를 첫 글자로 하여 나머지 동사와 결합한 '晃搖', '晃擺', '擺搖', '擺晃'는 존재하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이들 세 동사와 '動'의 겹합 가능성에 대한 비대칭성이다. '擺', '晃', '搖'는 모두 뒤에 '動'을 붙여 복합어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搖動'의 두 동사가 순서를 바꾼 '動搖'는 있는데 반해, '動擺'나 '動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搖晃　搖擺
*晃擺　*晃搖
*擺搖　*擺晃
擺動　晃動　搖動
*動擺　*動晃 動搖

3) 복합어의 사용 빈도 변화

'擺', '晃', '搖'과 '動'은 서로 결합하여 6개의 복합어를 만드는데, 이들 복합어는 의미도 대체로 유사하다. 하지만 출현빈도에서는 차이를 보이는데, '搖晃', '動搖'가 가장 많이 사용되며, 다음으로 '搖擺'와 '擺動', '晃動', '搖動'의 순이다. 그런데, CCL現代漢語 코퍼스에 나타난 출현 빈도는 이와 다소 차이가 있다. CCL現代漢語 코퍼스에서는 '動搖'의 출현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6,641회로 2,810회 출현한 '搖晃'의 두 배가 넘는다. 뒤를 이어 '搖擺', '晃動', '擺動'이 모두 1,000회를 상회하고 있으며, '搖動'도 가장 적게 출현했으나 빈도는 914회로 다른 어휘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이들 복합어가 모두 자주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내는데, 그 가운데 '動搖'와 '搖晃'이 현대중국어에서 사용빈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現代漢語頻率詞典』의 조사와 언어코퍼스상의 출현빈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빈도사전이 이들 어휘의 출현빈도를 정확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도 있고, '動搖'가 현대중국어에서 사용 횟수가 대폭 늘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가능케 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北京大学中国语言学研究中心 CCL现代汉语 코퍼스에서 '摆'를 검색하면 총 48463개의 용례가 나오는데, 초보적인 분석 결과 이 가운데 상당히 많은 예(13965개)가 '摆脱'였으므로, 이를 제외한 예는 34498개가 나온다. 물론, 여기에는 '摇动, 摇摆'라는 의미 외에, '安放, 排列', '显示, 炫耀'와 같은 동사용법과 '钟表或精密仪器上用来控制摆动频率的机械装置'라는 명사 용법 등으로 사용된 용례도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실제 동사용법은 이보다 더 적을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서는 우선 대략적인 출현빈도를 가늠하기 위한 것이므로 더 이상의 분석은 생략하였다.

어휘	『現代漢語頻率詞典』 횟수(빈도)	CCL고대한어 코퍼스	CCL현대한어 코퍼스	BCC고대한어 코퍼스	BCC현대한어 코퍼스
搖晃	39(0.00297)	2,810	8,709	23	76
動搖	38(0.00289)	6,641	17,070	894	10,971
搖擺	27(0.00205)	1,365	4,731	190	762
擺動	15(0.00114)	1,000	6,796	88	249
晃動	8(0.00061)	1,249	6,069	35	63
搖動	3(0.00023)	914	3,028	926	6,490

위의 표에 나타난 왕복이동 의미 복합어의 사용빈도 순서는 다음과 같다.

搖晃 > 動搖 > 動搖 > 擺動 > 晃動 > 搖動 (『現代漢語頻率詞典』)
動搖 > 搖晃 > 動搖 > 晃動 > 擺動 > 搖動 (CCL현대한어 코퍼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고대한어에서 이들 복합어의 출현빈도가 현대한어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고대한어와 현대한어에서 이들의 빈도는 다음과 같다.

어휘	CCL고대한어 코퍼스	CCL現代漢語 코퍼스
搖晃	23	2,810
動搖	894	6,641
搖擺	190	1,365
擺動	88	1,000
晃動	35	1,249
搖動	926	914

고대한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搖動'으로 926회이며, '動搖'가 894회로 이 두 어휘가 월등히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뒤를 이어 '搖擺'가 190회, '擺動'이 88회 나타났으며, '晃動'과 '搖晃'은 각각 35회, 23회로 고대한어에서 출현 빈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搖動 > 動搖 > 搖擺 > 擺動 > 晃動 > 搖晃 (CCL고대한어 코퍼스)

위의 순서는 고대한어에서 현대한어로 오면서 이들의 사용에 있어 큰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 '搖動'은 고대한어에서 사용빈도가 가장 높았는데 현대한어에서 가장 사용빈도가 낮은 반면, '搖晃'은 고대한어에서 사용빈도가 가장 낮았지만 현대한어에서 '動搖'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 '動搖'는 고대한어에서도 많이 사용되었지만 현대한어에서 폭발적으로 사용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복합어의 출현 시기 차이

공시적인 현대한어에서의 사용빈도에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통시적인 시각에서도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이들 세 동사는 출현시기에서도 위의 순서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베이징대학 CCL 코퍼스에서 검색범위를 고대한어로 설정하고 검색한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베이징대 고대한어 코퍼스에 나타난 문헌만을 근거로 대략 살펴보면, '搖'는 세 동사 중에 가장 이른 周대의 문헌에 이미 나타났으며, '擺'는 이보다 늦은 六朝시기의 문헌부터 보이고, '晃'은 가장 늦은 戰國시대 문헌부터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의 출현 시기는 역시 '搖 > 擺 > 晃'의 순서임을 알 수 있다.

어휘	시대	출현횟수
擺	六朝	8,085
晃	戰國	3,814
搖	周	13,065

가장 이른 시기에 나타나서 사용된 기간이 길기 때문에 고대한어 코퍼스 상의 출현횟수 역시 가장 많은 것이 당연할 것이다. 즉, '搖'는 가장 먼저 나타나서 현대한어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출현빈도가 가장 높고, 이에 따라 다른 어휘와 결합하여 새로운 어휘를 생성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복합어의 출현 시기도 이들 세 동사의 출현 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搖'의 출현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搖動'과 '動搖'도 서한 시기에 이미 출현하고 있다. 반면, 이보다 늦은 시기에 출현한 '擺'로 인해 '搖擺'와 '擺動'는 남송 시기에 비로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搖擺'는 남송 시기 화본 소설에서 '搖搖擺擺'의 중첩 형태로 출현하고 있으나, 본격적으로 사용된 시기는 명대로 보여진다. 한편, '晃'은 가장 늦게 출현하였기 때문에 '晃動'과 '搖晃'은 명대 소설에 처음 등장하고 있다. 즉, 이들의 사용빈도는 출현 순서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복합어 출현 순서
搖動, 動搖 (西漢) > 搖擺, 擺動 (南宋) > 晃動, 搖晃 (明)

4. 통사 용법 차이

『現代漢語規范用法大詞典』[3]에서 '擺', '晃', '搖'는 모두 동사로 보았으며, 용법은 다음과 같다.

擺: 술어
小狗儿擺着尾巴。(帶賓)
小猪的尾巴不停地擺。(帶狀)
船擺得厲害。(帶補)

晃: 술어
孩子能晃晃手了。(帶賓)
樹枝不听地晃着。(帶狀)
樹枝也晃了起來。(帶補)
보어
風把樹枝吹得直晃。
車被他開得不停地晃。
목적어
小屋子開始晃了。
搖: 술어
他把頭搖了搖。
搖了搖手中的花束。(帶賓)

3) 学苑出版社, 1997.

鈴只摇了几下。(帶狀)
把船儿摇過來了。(帶補)
관형어
摇的号碼是多少?

세 동사 모두 서술어로 사용되며, 목적어와 부사어, 보어를 수반할 수 있다. 그런데 '晃'은 서술어 외에 보어와 목적어도 될 수 있으며, '摇'는 관형어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용법은 이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摇'와 '晃'도 보어에 사용될 수 있으며, 관형어가 되기도 한다.

風把車子吹得摇來摇去。
被風吹晃的月亮
你准備開始摇了嗎?

이를 통해 통사용법에 있어서 '擺', '晃', '摇'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특징은 이 세 동사가 문장에서 단독으로 서술어나 보어가 되기보다 앞에서 살펴본 합성어의 형태로 서술어나 보어로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에서 제시한 복합어의 통사특징은 어떨까? 역시『現代漢語規范用法大詞典』을 기준으로 '摇動', '動摇', '摇擺', '擺動', '晃動', '摇晃'의 통사특징을 조사해 보았다. 이들의 품사와 관련하여 사전의 풀이를 살펴보면, '摇動', '動摇', '摇擺', '擺動', '晃動', '摇晃'를 모두 동사로 보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動摇'는 의미가 목적어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는 형용사로 보았고, 목적어를 수반하면 동사로 보았다. 그런데, 또 이와 같은 자동사, 타동사 용법을 모두 가진 '摇動'은 동사로 보고,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4] 그리고 문장성분과 관련하여, 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용법은 술어로 사용되며, 관형어와 보어, 부사어, 목적어가 될 수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어휘	품사	문장성분
摇	동사	술어, 보어, 관형어
擺	동사	술어, 보어, 관형어
晃	동사	술어, 보어, 관형어
摇晃	동사(자)	술어, 관형어, 부사어, 목적어
動摇	형용사, 동사(자, 타)	술어, 관형어, 보어, 목적어/술어
摇擺	동사(자)	술어, 관형어, 부사어
擺動	동사(자)	술어, 관형어
晃動	동사(자)	술어, 관형어, 보어, 목적어
摇動	동사(자, 타)	술어, 관형어, 목적어

그렇다면『現代漢語詞典』에서는 '動摇'의 품사를 어떻게 분류하고 있을까? 『現代漢語詞典』은 '動摇'를 다음과 같이 동사로 분류하고 있다.

[動摇]
動 ① 不穩定：不堅定：意志堅定，絶不~。
② 使動摇：环境再艱苦也~不了這批青年医院便將建設的決心。

4) 사전에서는 이를 不及物(자동사)와 及物(타동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자동사와 타동사의 두 가지 용법으로 구분하고 있다.

‘動搖’가 목적어를 수반하지 않을 때의 의미인 ‘不穩定’, ‘不堅定’이 실제로 모종의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형용사성으로 보아 『現代漢語規范用法大詞典』에서는 이를 형용사로 분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現代漢語詞典』에서는 이를 동사성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유사한 의미를 가진 ‘搖動’에 대해서는 『現代漢語詞典』에서도 동사로 보고 있다.

[搖動]
動 ① 搖東西是它動：用力~木樁。
② 搖擺：柳枝在水面上~。
③ 動搖：人心~。

‘搖動’의 의미 항목 ③이 ‘動搖’와 같다면, 『現代漢語規范用法大詞典』에서 ‘動搖’를 형용사와 동사로 구분하는 것도 근거가 약하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現代漢語詞典』와 마찬가지로 ‘動搖’를 동사로 보며, 두 가지 의미는 자동사와 타동사의 특성으로 본다.

그렇다면, ‘흔들리다’라는 의미는 초기에 ‘搖’에 의해 나타내어지다가, 이후 한 대에 이르러 ‘動’과 결합한 ‘搖動’와 ‘動搖’이 출현하게 되면서 이들에 의해 표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搖動’와 ‘動搖’은 자동사와 타동사의 기능을 모두 가진 동사이다. 이후에 ‘擺’가 나타나면서 ‘搖’와 ‘動’이‘擺’와 결합한 ‘搖擺’와 ‘擺動’가 출현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搖動’와 ‘動搖’의 자동사 용법을 나타내게 된다. 그러다가 후에 ‘晃’이 출현하면서, ‘動’과 ‘搖’가 다시 이와 결합하여 새로운 복합어인 ‘晃動’과 ‘搖晃’이 출현하게 되는데, 이들도 역시 자동사 용법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흔들리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자동사 용법은 계속 새로운 복합어가 나타나면서 다양한 어휘로 확대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타동사 용법은 새로운 복합어가 나타나지 않고 ‘搖動’과 ‘動搖’가 현대까지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搖動, 動搖 (西漢) > 搖擺, 擺動 (南宋) > 晃動, 搖晃 (明)
동사(자, 타) 동사(자) 동사(자)

5. 의미 특징과 어휘 결합 양상

1) 의미 유사성

먼저 ‘擺’, ‘晃’, ‘搖’의 의미를 중국의 대표적인 사전인『現代漢語詞典(第7版)』을 살펴보면, ‘擺’는 ‘搖動’과 ‘搖擺’를 사용하여 풀이하고 있고, ‘晃’의 풀이에는 ‘搖動’과 ‘擺動’를 사용하였으며, ‘搖’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 ‘搖擺’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문을 보면 세 동사 모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 유사성은『중한사전』의 풀이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이 세 동사는 모두 타동사 의미인 ‘흔들다’로 설명하고 있다.

어휘	의미	
摆	摇动; 摇摆	흔들다.
晃	摇动；摆动	흔들다. 흔들리다. 요동하다.
摇	摇摆；使物体来回地动	(좌우로) 흔들다. 흔들어 움직이다.

결국 세 동사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위 세 동사를 조합한 ‘搖晃’, ‘搖擺’, 그리고 이 세 동사와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 ‘動’을 결합한 합성어 ‘擺動’, ‘晃動’, ‘搖動’의 의미도 중국어와 한국어사전에서 거의 유사하다.

어휘	의미	
摇晃	摇擺; 摇動	흔들리다. 흔들흔들하다. 흔들(어 움직이게 하)다
摇擺	向相反的方向來回地移動或變動	흔들거리다. (의지나 감정이) 동요(動搖)하다.
摇動	摇東西使它動; 摇擺; 動摇	흔들다. 흔들어 움직이게 하다.
晃動	摇晃; 擺動	흔들다. 흔들거리다.
擺動	來回摇動; 摇擺	흔들거리다. 흔들다. 진동하다(시키다).
動摇	(形)不穩固;不堅定／(動)使動摇	동요하다. 흔들리다. 흔들다. 동요케 하다.

'摇晃'과 '摇動', '擺動'은 '摇擺'의 의미이고, '晃動'은 '摇晃'의 의미이니, 결국 이들은 모두 같은 의미인 '상반되는 방향으로 왕복이동'의 의미로 이해된다.

2) 어휘 결합 양상

의미 확장과 관련하여서도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摇晃'과 '動摇'는 모두 '흔들리다'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코퍼스를 통해 추출한 예를 보면 전자와 결합하는 명사는 주로 '手臂', '身体', '肩膀', '牙齒' 등의 신체부위나 '欄杆', '花朵', '叶子', '樹叶', '窗帘'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물이 많은 반면, '動摇'는 구체적인 사물도 있지만 '決心', '信仰', '想法', '信心', '意志', '人影' 등 추상적인 사물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動摇'의 의미 확장의 정도가 더 높음을 보여준다.

어휘	결합하는 명사
摇	身体部位 : 身体, 頭(腦袋), 胳膊, 肩膀, 手, 骨頭, 尾巴 車窗, 船, 櫓, 扇子, 電話, 元宵, 骰子, 暖瓶, 旗, 鈴, 槳, 号
晃	身体部位 : 身体, 身子, 頭, 腦袋, 胳膊, 腿, 膀子, 手掌, 拳頭, 尾巴, 頭發, 腰肢, 人 警棍, 車窗, 椅子, 床, 鋼鐧, 撥浪鼓, 列車, 船, 書, 布娃娃
擺	手, 頭, 双臂, 表, 摇頭擺尾
摇晃	身体部位 : 手臂, 辮子, 全身体, 腦袋, 胳膊, 肩膀, 屁股, 牙齒, 脚步, 身影 車子, 卡車, 列車, 巴士, 門, 床, 欄杆, 椅子, 樓梯, 梯子, 吊灯, 窗帘, 樹枝, 樹叶, 枝丫, 叶子, 花朵, 稻子, 青草, 柳樹, 樹影, 撥浪鼓, 小手鼓, 大厦, 雨布, 長劍, 盒子, 水桶, 統計表, 錢
摇擺	身体, 身板, 身軀, 上身, 手, 胳膊, 腿, 尾巴, 下巴, 頭發, 辮子, 頭顱, 腦袋, 肥臀 槍, 菜刀, 床, 襯衣, 楊柳, 柳枝, 稻穗, 谷子, 高粱, 罌粟, 旗, 叶子, 芳草, 身影, 灯火, 火苗, 船身, 吉普車, 担架, 房屋, 頭, 箭身, 紅領巾, 心, 感情, 意志, 思想, 看法
摇動	身子, 頭, 腦袋, 頭發, 長發, 腦殼, 手臂, 手臂, 双臂, 兩腿, 兩肩, 肩膀, 臂膀, 手 樹叶, 樹枝, 小樹, 楊柳, 青草, 灌木, 廟宇, 房屋, (竹)床, 摇籃, 木排, 扇子, 芭蕉扇, 碟子, 灯籠, 山, 鐘擺, 土地, 大峽, 銀光, 野花, 蒲葦, ~水壺, 槳櫓, 筆杆, 船, 大旗, 馬鞭, 芦葦, 電話机摇把, 影子, 鐵樁, 竹筒, 轆轤, 手鈴, 簽筒, 枝條, 鼓風机, 鈴鐺, 步行机, 起爆器, 把柄, 軍心, 地位
晃動	頭, 腦袋, 身体, 身子, 肉膀子, 肩頭, 手, ~胳膊, 双臂, 人頭, 尾巴, 辮子, 臉, 面孔, 指甲, 人群, 人影, 身影, 影子, 黑影, 樹影, 棗樹, 火光, 光暈, 灯光, 海浪, 油烟, 包袱, 相机, 窗玻璃, 水, 盒子, 光線, 手電 (光) , 袴襠, 車子, 列車, 車廂, 汽車, 屋子, 大橋, 木牌, 梯子, 樹枝, 玉米叶, 支撐木, 篝火, ~鍋, 鈔票, 軍刀, 探照灯, 酒盅, 鞭子, 液体, 鷄尾酒, 耳环, 照片, 小旗, 紅旗, 疑問, 人心
擺動	身体部位 : 手, 眼珠, 尾巴, 頭, 腦袋, 頭頸, 手臂, 双脚, 辮子, 身体, 腰, 手指, 身影, 胯, 魚尾 双槳, 巨擺, 空袖子, 耳墜, 机槍, 白毛巾, 恒星, 樹, 房子
動摇	抽象事物 : 權威性, 敬仰, 憎恨, 決心, 想法, 信仰, 士气, 軍心, 精神支柱, 地位, 信心, 意志, 可信性 人影, 碉堡

이상으로 '擺', '晃', '摇'과 '摇晃', '動摇', '摇擺'와 '擺動', '晃動', '摇動'의 의미와 어휘 결합, 통사 용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모두 '흔들다', '흔들리다'의 의미를 나타내며, 서술어로 사용되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이들의 통사, 의미의 차이와 개별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현재 알려진 바가 없는 실정이다.

【參考文獻】

北京大學中國語言學研究中心 CCL
『古代漢語詞典』, 古代漢語詞典編寫組編, 商務印書館, 2003.
『한중사전』, 고대민족문화연구원 중국어대사전 편찬실,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4.
『現代漢語詞典(第六版)』,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商務印書館, 2012.
『現代漢語頻率詞典』, 北京語言學院語言教學研究所編, 北京語言學院出版社, 1986.
『現代漢語規范用法大詞典』, 周行健·余惠邦·楊興發主編, 學苑出版社, 1995.
『중한사전, 고대민족문화연구원 중국어대사전 편찬실,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3.
蔣紹愚, 「漢語詞義和詞匯系統的歷史演變初探－－以“投”爲例」,『北京大學學報』, 2006, 第4期.

【논평문】

중국어 왕복이동 동사의 용법과 의미

이은수(충남대학교)

기존의 이동동사에 대한 연구는 필자가 언급한 대로 '來／去(오다/가다)'나 방향보어로 사용되는 동사 정도에 국한되어 있었던 데 비해, 본 논문에서는 '흔들리다' 의미의 중국어 동사라는 새로운 연구 주제를 발굴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논문이라고 생각하고 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논문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 두 가지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1. 필자는 '왕복 이동'이 이동 방향에 있어서 '좌우', '상하', '전후'의 방향이 있을 수 있고, 운동 형태에 있어서는 '직선', '곡선' 운동이 있을 수 있고, 이동 주체에 따라서도 '사물 전체의 이동'과 '한쪽이 고정된 채 사물의 일부만 이동'하는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필자가 든 '摇動'의 예(摇動的樹, 摇動的秋千, 摇動的窗戶, 摇動的船)를 보면 상하 방향은 찾아보기 어려워, '흔들리다' 의미의 동사가 실제로 '상하' 방향의 왕복 운동을 나타내는 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흔들리는' 것은 '수평' 방향이지 '수직' 방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중력의 영향 아래 살고 있으므로, 주위에서 흔히 관찰되는 '상하' 방향의 운동은 '위에서 아래로'의 낙하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반면 어떤 운동이 계속되는 왕복운동이 되려면 중력의 영향을 덜 받는 '수평' 방향의 운동이 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물론 한쪽이 고정된 '추'의 왕복 운동에는 '수직', '수평' 방향의 운동이 모두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나, 예를 들어 '그네'(秋千)의 움직임에서 우리가 더 주목하는 것은 '수직' 방향의 운동이 아니라 역시 '수평' 방향의 운동인 것 같습니다.

2. 필자는 '摇号', '摇獎机' 등의 단어를 통해 '摇'가 '원형운동'도 나타낸다고 보았습니다. "이들 어휘는 숫자가 적인 공들을 통 안에 넣고, 통 자체를 돌리거나 공기를 쏘거나 바닥을 회전함으로써 공을 불규칙적으로 회전시키고, 추첨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필자는 '摇'의 의미가 원래 직선 형태 또는 포물선 형태의 왕복운동에서 원형 형태의 왕복운동으로 확장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자가 도식화한 그림이 나타내는 것은 '회전' 운동일 뿐 '왕복' 운동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본 다른 운동은 운동 방향이 반복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바뀌는 운동인 반면, '摇号', '摇獎机'의 도식에 나타난 '원형운동'은 운동 방향이 한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摇'는 '왕복운동'에서 '회전운동'으로 의미가 확장되었을까. 그게 아니면 혹시 '摇' 자체가 나타내는 것은 여전히 '왕복운동'인데, 단지 여기에서 겉으로 드러난 방식이 '회전운동'인 것은 아닐까 하는 궁금증도 듭니다.

즉 '摇号', '摇獎机'에서도 '摇'는 여전히 '흔드는' 왕복운동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 '摇'는 어떤 게 뽑힐지 모르게 추첨 대상을 계속 '흔들리게' 함을 나타낼 뿐인데, 단지 여기서 대상을 '흔들리게' 하는 데 사용되는 기계적인 장치가 '회전'의 방식을 취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